

2026 미중 충돌의 지도

부산에서 묶고, 베이징에서 풀지 못한 1년

김경진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목차

프롤로그 프롤로그 빈손의 인민대회당
사진은 완벽했고, 그 안은 비어 있었다

서장 패권은 어디서 갈리는가
수에즈에서 배운다, 패권은 총이 아니라 돈과 공장에서 갈린다

제1부 두 번의 악수, 풀리지 않은 매듭

1장 부산의 거래
다섯 무기를 한 날짜에 묶은 1년짜리 휴전

2장 미뤄진 방중, 이란이라는 변수
이란 전쟁이 봄의 방중을 지우다

3장 베이징의 침묵
관세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4장 11월 10일이라는 시한
다섯 개의 시계가 한날한시에 울린다

제2부 관세, 무너진 칼과 새로 뽑은 칼

5장 대법원이 칼을 부러뜨리다
관세는 위헌,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다

6장 트럼프, 다른 칼을 집다
칼의 이름만 바뀌고 서울은 그대로

7장 멈춘 배, 유예된 수수료
한국 기업이 미·중 입항료 전쟁에 끼이다

제3부 반도체, 풀린 빗장과 닫힌 세관

8장 H200, 미국이 열고 중국이 닫다
문을 열자, 중국이 사지 않았다

9장 화웨이의 응답
효율을 잃더라도 주권을 택하다

10장 50% 룰, 가장 조용한 무기
정의 한 줄로 조달망 전체를 묶다

11장 삼성과 SK가 선 자리
HBM 9할을 쥐고도 흔들리는 자리

제4부 자원과 에너지, 대칭 보복의 시대

12장 **0.1%의 그물**
가루 0.1%에 베이징의 허가가 걸린다

13장 **미국의 반격, MP머티리얼즈**
국가가 시장을 다시 짜도 시간은 못 산다

14장 **호르무즈와 중·러 연대**
중국은 누구에게도 큰 패를 주지 않았다

15장 **달러를 다시 설계하다**
칩과 희토류는 좁혔어도 돈은 못 좁혔다

제5부 대만과 바다, 건드리지 않은 뇌관

16장 **베이징이 비켜간 의제**
위험한 단어, 대만을 미국이 지웠다

17장 **남중국해, 아홉 개의 선**
종이 위의 아홉 줄, 물 위의 234척

18장 **무기는 계속 팔린다**
회담장의 평화, 장막 뒤의 무기

제6부 한국, 새우등과 패 사이

19장 **76% 급락이 말한 것**
한 달 만에 76퍼센트, 협상력 제로의 성적표

20장 **25% 명단에 오른 나라**
관세를 깎는 데 3,500억 달러

21장 **갈림길의 세 패 - HBM·핵심광물·통상**
세 패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자리

에필로그 **에필로그 다시, 11월 10일, 그리고 9월 24일**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다음 충돌의 준비였다

판권

프롤로그 빈손의 인민대회당

앵커리지의 활주로에는 5월인데도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새벽, 베이징으로 향하던 에어포스원이 급유를 위해 알래스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작은 전세기 한 대가 뒤따라 내렸고,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배낭 하나만 멘 채 트랩을 뛰어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의 호출 부호입니다. 대통령이 어디로 가느냐는 그 자체로 신호입니다. 미국 지도자가 중국 땅을 밟는 것은 약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상이 직접 비행기에 오른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베이징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흘 전까지 그의 이름은 방중단 명단에 없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뉴스를 읽은 트럼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합류하라. 황은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AI 칩 한 종류의 운명이 이 출장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젠슨 황이 누구이고 왜 그가 비행기를 돌렸는지 짚어 두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 쓰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챗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지금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계산을 빠르게 해내야 하는데, 그 계산을 도맡는 칩을 사실상 이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황은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가장 좋은 칩을 사가지 못하도록 수출을 막아 왔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하나가 통째로 잠긴 셈이었습니다. 황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빗장을 풀어 달라고 매달려 온 까닭입니다. 트럼프의 전화 한 통에 그가 향로를 바꾼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기내에는 이미 미국 자본의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팀 쿡, 데이비드 솔로몬. 트럼프는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표가 필요했고, 표를 만드는 것은 일자리와 계약서였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의회 선거입니다. 대통령 자리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하원 전체와 상원 일부를 새로 뽑습니다. 이 선거에서 지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의회의 발목을 잡힙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게 중간선거는 자기 정책의 운명이 걸린 시험대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최고 기업인들을 한 비행기에 태워 베이징으로 데려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들이고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그것이 곧 일자리이고 표였습니다. 회담의 성과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트럼프는 인민대회당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가 2017년 가을 자금성을 둘러본 뒤로 8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그를 맞았습니다. 푸른 정장과 남색 정장, 두 사람은 넥타이 색만 같았습니다. 셔터가 쏘아지는 가운데 두 손이 맞잡혔습니다.

인민대회당은 베이징 텐안먼 광장 서쪽에 있는 거대한 건물입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외국 정상을 맞는 국가 의전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중국이 손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위엄이 그 계단과 기둥에 담겨 있습니다. 시진핑이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맞았다는 것은, 화면에 담길 그림 하나하나를 베이징이 미리 계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완벽했습니다.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회담은 두 시간을 넘겼지만,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한 단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세였습니다. 회담 다음 날 그는 기자들에게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시진핑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 문제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산에서 묶은 1년짜리 휴전은 11월 10일이면 풀립니다. 그 매듭을 다시 조일 자리에서, 매듭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무엇이고, 부산의 휴전이 무엇인지 풀어 두겠습니다. 관세는 나라 사이에 물건이 넘어올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올리면 상대 나라 물건값이 비싸지고, 그만큼 팔기 어려워집니다. 미국과 중국은 몇 해 동안 서로의 물건에 관세를 높이 매기며 맞부딪쳐 왔습니다. 양쪽 다 손해가 커지자, 두 나라는 한발씩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그 합의가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이루어진 1차 정상회담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관세를 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부산의 1년 휴전입니다. 휴전은 싸움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입니다. 멈춤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이 그 기한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무엇이 되살아날지, 누구도 약속해 두지 않은 채 베이징 회담은 끝났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그 연장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대신 두 나라는 새 간판 두 개를 세웠습니다.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해마다 170억 달러어치 사고, 보잉 여객기 200대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는 컸습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큰 숫자였습니다.

보잉은 미국을 대표하는 여객기 제조사이고, 농산물 구매는 미국 중서부 농가의 살림과 공장 이어집니다. 둘 다 일자리가 눈에 보이는 품목입니다. 위원회를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만나 의논할 창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장 풀린 것은 없지만, 발표할 거리는 생긴 셈입니다. 선거를 앞둔 대통령에게는 그 발표가 곧 성과였습니다.

회담이 끝나자 두 나라는 각자의 발표문을 냈습니다. 같은 회담을 두고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발표문에는 희토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급 부족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발표문에는 희토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쪽이 합의라 부른 것을, 다른 쪽은 적지 않았습니다.

발표문은 회담이 끝난 뒤 각 나라가 자기 입장에서 정리해 내놓는 글입니다. 두 나라가 한목소리로 내는 공동성명과는 다릅니다. 공동성명이 없었다는 것은, 두 나라가 같은 문장에 함께 서명할 만큼은 합의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희토류는 그 엇갈림이 가장 또렷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그리고 첨단 무기에까지 들어가는 금속 원소들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땅속에 드물게 흩어져 있어 캐내고 정제하기가 까다로운데, 그 정제 공정을 중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조이면 미국 공장과 군수 산업이 곧바로 숨이 막힙니다. 미국이 발표문에 희토류를 굵게 적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원을 쥐는 중국은 같은 단어를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합의라 부른 것을, 중국은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빠진 단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만이었습니다. 회담장에서 시진핑은 그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고, 잘못 건드리면 관계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놓은 짧은 발표문에서 대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작 제일 위험한 단어가 소리 없이 빠졌습니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부딪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영토의 일부로 보고, 언젠가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팔며 그 곁을 지켜 왔습니다. 시진핑이 회담장에서 대만을 잘못 건드리면 관계가 위태로워진다고 못을 박은 것은, 베이징이 그 어떤 거래보다 이 문제를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가장 험한 뇌관을 들고 온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발표문에서 그 단어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제일 뜨거운 쟁점을 굳이 종이에 적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적지 않을지를 두고도 회담은 흥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시진핑은 트럼프를 중난하이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1949년 이후 중국 지도부가 일하고 살아온 담장 안입니다. 통역을 사이에 두고 시진핑은 그곳의 내력을 이야기했고, 장미 씨앗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백악관 뜰에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답했습니다.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장미일 거라고.

중난하이이는 베이징 자금성 바로 옆에 있는 호수와 정원, 그리고 청사가 모인 구역입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로 최고 지도부가 그 담장 안에서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외부인은 거의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곳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그 안으로 데려가 정원을 걸으며 내력을 들려준 것은, 손님에게 베푸는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동시에 누가 이 자리의 주인인지를 조용히 일러두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9월 24일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충돌은 없었습니다. 풀린 것도 없었습니다. 관세도, 희토류도, 반도체도, 대만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두 거인은 장미 씨앗 한 봉지를 들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약속을 9월로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직전입니다. 트럼프는 그때 시진핑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또 한 번 정상회담의 그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표를 만드는 데 회담만 한 무대가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두 사람이 다음 만남을 약속한 까닭을, 그 날짜가 말해 줍니다.

왜 빈손이었을까요. 아니, 정말 빈손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시간을 벌었고, 누군가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 1년이 평화가 아니라 다음 충돌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그동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책의 모든 질문이 그 빈손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빈손의 인민대회당

정치적 성과를 위한 거대한 숫자판 뒤에는 관세와 반도체 등 핵심 쟁점이 철저히 외면된 텅 빈 합의만 남았습니다.

\$17B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약속

200

보잉 여객기 주문량

0

관세·희토류 등 실질적 합의 건수

- 미국은 다가올 중간선거를 위한 표와 일자리 지표를 챙겼고, 중국은 제재와 대만 문제 등 치명적 의제를 회피했습니다.
-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엇갈린 발표문을 낸 두 거인은, 양보 없는 다음 충돌을 위해 서로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Source: 붙여넣은 텍스트 - 빈손의 인민대회당

NotebookLM

서장 패권은 어디서 갈리는가

1956년 가을, 런던 재무부에 전쟁보다 무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파운드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7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습니다. 운하는 유럽으로 가는 석유가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함께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영국군은 운하 지대를 손에 넣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무엇인지 잠깐 짚겠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인공 물길입니다. 유럽이 중동의 석유를 실어 나르는 제일 짧은 길이고, 그 길을 누가 쥐느냐가 곧 유럽의 숨통을 쥐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이 총을 들고 달려간 까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국이 군대를 거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무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쥘 막대한 파운드화를 시장에 풀어 값을 떨어뜨리겠다고 압박했고, 영국이 기대던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차관도 막아 세웠습니다.

파운드화와 국제통화기금이 무엇인지 풀어 두겠습니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돈이자, 그 무렵 여러 나라가 무역에 쓰던 국제 통화였습니다. 그 값이 무너지면 영국은 수입 대금을 치를 외화가 마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외화가 바닥난 나라에 급히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미국이 그 두 곳을 한꺼번에 잡그자, 영국은 며칠 안에 외환이 마를 처지가 되었습니다.

총은 이겼는데 돈이 졌습니다. 영국은 군대를 거두었습니다. 그날 무너진 것은 운하가 아니라 제국이었습니다. 한 세기를 지배한 나라가, 총 한 발 더 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자기 돈이 더는 세계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패권은 흔히 전쟁으로 갈린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패권은 전장이 아니라 환율과 공장에서 갈렸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나라가 쓰는 돈을 찍는 쪽이 이겼습니다. 수에즈는 그 사실을 단번에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패권은 한 곳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네 개의 층위에서 함께 갈립니다.

첫째는 생산입니다. 누가 더 많이, 더 싸게 만드느냐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이 그랬고, 20세기의 미국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배를 짓는 능력만 따지면 미국을 까마득히 앞섭니다.

둘째는 기술입니다. 모두가 의존하는 길목 기술을 누가 쥐느냐입니다. 반도체가 그렇고, 희토류를 정제하는 솜씨가 그렇습니다. 길목을 쥔 쪽은 상대의 공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융입니다. 세계가 어느 나라의 돈으로 거래하느냐입니다. 1956년 영국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도 세계 무역 대금의 대부분이 달러로 오갑니다. 달러를 쥔 미국은 제재라는 무기를 함께 손에 넣습니다.

넷째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란 전면전이 아닙니다. 바닷길을 누가 지키느냐입니다. 석유와 반도체와 곡물이 지나가는 바다를, 누구의 함대가 통제하느냐입니다. 그것을 제해권이라 부릅니다.

이 책이 따라가는 2026년의 충돌은, 그 네 층위에서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세기에는 함포가 앞에 섰지만, 지금은 관세와 반도체와 희토류가 앞에 섭니다. 부산과 베이징의 회담장에서 두 정상이 주고받은 것이 총이 아니라 칩과 금속과 세금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의 공장을 멈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전선을 하나씩 따라갑니다. 두 정상이 악수했지만 매듭은 풀지 못한 회담에서 시작해, 미국이 쥔 관세의 칼로, 반도체의 빔장으로, 자원과 에너지의 보복으로, 대만이라는 뇌관과 그 곁의 바다로,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한국의 자리로 갑니다. 네 층위가 어디서 부딪치는지, 그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1956년 영국은 자기 차례가 온 줄을 몰랐습니다. 운하를 지키느라, 제국이 끝나는 줄을 몰랐습니다. 패권이 갈리는 자리는 늘 그렇게, 당사자가 제일 늦게 압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그 자리에는 지금 누가 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곁에 선 한국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서장 패권은 어디서 갈리는가

패권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생산, 기술, 금융, 군사(제해권)**의 4대 층위에서 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1956년

총은 이겼으나 환율과 공장에 저서 몰락한 **영국 제국의 교훈**

4개

패권을 가르는 층위:
생산·기술·금융·제해권

과거 제국의 몰락이 환율과 공장의 격차에서 비롯되었듯, 현대의 충돌은 총성 없이 관세와 반도체, 자원의 무기화로 전개됩니다. 미·중 간의 복합적인 패권 경쟁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은 이 4가지 전선이 교차하는 새로운 지도를 직시해야 합니다.

출처: 불어넣은 텍스트 (서장)
NotebookLM

제 1 부

두 번의 악수, 풀리지 않은 매듭

1장 부산의 거래

2025년 10월 9일, 베이징이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공고 61호를 냈습니다. 중국 밖에서 만든 물건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0.1퍼센트만 섞이면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는 규칙이었습니다. 군사용으로 흘러갈 물건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공장 가운데 중국산 희토류가 한 톨도 안 들어간 정밀 제품은 드뭅니다. 종이 한 장으로, 베이징은 지구 반대편 공장의 출하 버튼에 손을 얹었습니다.

희토류라는 말부터 풀어야겠습니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땅속에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캐낸 흙에서 그것만 골라내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가공 기술과 설비를 중국이 거의 다 쥐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미사일 유도장치, 전투기에 들어가는 자석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공고 61호의 무서운 점은 미량 규칙이었습니다. 0.1퍼센트. 최종 제품 가치의 천 분의 일만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가도 베이징의 허가증이 있어야 그 물건을 수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규칙은 중국 땅 밖에서 만든 외국 회사 제품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영토 안의 거래만 통제하는 것이 보통인데, 베이징은 남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거래까지 묶었습니다. 이런 것을 역외 수출허가제, 어려운 말로 치외법권적 관할권이라 부릅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써온 수법을 중국이 그대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희토류 수입의 80퍼센트를 중국에 기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도 그 손아귀 안에 있었습니다. HBM은 여러 장의 메모리 칩을 위로 쌓아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넓게 뚫은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계산에서 데이터가 병목 없이 흐르게 해주는, 사람으로 치면 굵은 동맥 같은 부품입니다. 그 정밀 공정에 희토류가 들어갑니다. 공고 61호가 살아 있으면, 한국 기업이 미국 국방망에 HBM을 납품할 때도 베이징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무게로 받아쳤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퍼센트 추가 관세. 평균 55퍼센트이던 실효 세율이 155퍼센트로 뿔 참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항공기 부품의 수출을 더 죄겠다는 으름장,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빅테크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100조 원어치 사라졌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급소를 동시에 쏜 채, 달력에는 회담 날짜만 남아 있었습니다.

100퍼센트 관세가 어떤 숫자인지 짚어두겠습니다. 관세는 수입 물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100퍼센트 붙으면 100원짜리 물건이 200원이 됩니다. 그 전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여러 명목의 관세를 겹겹이 쌓아두고 있었고, 평균을 내면 55퍼센트쯤이었습니다. 여기에 100퍼센트를 더 얹겠다는 것이니, 합치면 155퍼센트. 사실상 중국 물건을 미국 시장에서 밀어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희토류 조치를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행위"라 불렀습니다. 같은 말을 중국도 미국의 관세를 두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거인이 서로의 목에 손을 얹고 누가 먼저 힘을 줄지 노려보는 형국이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부산이 열렸습니다.

10월 30일, 트럼프와 시진핑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댄 것은 2019년 오사카 이후 6년 만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곧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회담은 100분 만에 끝났습니다. 방을 나온 트럼프는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10점이 만점인데 12점짜리 회담이었다고 했습니다.

거래의 뼈대는 맞교환이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내렸습니다. 이 관세는 그해 2월 10퍼센트로 시작해 3월 20퍼센트로 올랐던 것입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한 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합성 마약입니다. 그 원료가 중국에서 흘러나온다는 이유로,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 전반에 "펜타닐 관세"라는 이름을 붙여 세금을 매겼습니다. 마약 단속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관세를 쓴 셈입니다. 이 관세의 법적 뿌리는 국가긴급경제권한법, 영어 약자로 IEEPA였습니다. 나라에 비상한 위협이 닥쳤다고 대통령이 선언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트럼프는 마약 위기를 그 비상사태로 삼았습니다. 부산을 거치며 트럼프는 11월 4일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인하는 11월 10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화답으로 중국은 멈췄던 미국산 콩을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그해 남은 두 달 동안 1,200만 톤, 이후 3년은 해마다 2,500만 톤. 콩이 왜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너른 콩밭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농민들의 땅입니다. 무역 전쟁이 터지자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끊었고, 미국의 대중국 콩 수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미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번 다른 나라로 돌아간 거래처가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농민들은 알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농가에 풀 직접 지원금으로 10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를 잡아둔 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소 14조 원,

최대 20조 원. 관세로 거둔 돈을 농가 달래기에 다시 쏟아붓는 모양새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맞교환은 자원과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은 사흘 전에 뽑은 공고 61호를 1년 동안 칼집에 넣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자기 칼을 거뒀습니다.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자회사까지 통제 대상에 자동으로 넣는 50퍼센트 자회사 규칙, 중국 선박에 물리려던 항만 수수료. 둘 다 1년 멈췄습니다. 같은 테이블 위에서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가 등가로 교환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는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고 호언했습니다.

미국이 거둔 칼이 무엇인지도 풀어두겠습니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가 관리하는 거래 제한 명단입니다. 여기 오른 기업에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화웨이, SMIC 같은 중국 반도체 회사가 이 명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오른 회사가 다른 이름의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우면 옆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막으려고 미국이 새로 만든 것이 50퍼센트 자회사 규칙입니다.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의 절반 넘게 가진 회사라면, 이름이 달라도 자동으로 같은 통제를 받게 한 규칙입니다. 부산에서 미국은 이 규칙의 시행을 1년 멈췄습니다. 화웨이나 SMIC가 위장 계열사로 첨단 장비를 우회 수입할 옆문을, 1년 동안 열어둔 셈입니다. 항만 수수료는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조선업 지배를 견제하려고, 중국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특별 요금을 물리려던 조치입니다. 무역법 301조라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미국이 보복할 수 있게 해주는 통상법의 칼입니다. 이것도 1년 칼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묶인 것은 풀린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습니다.

같은 회담을 두고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이번 타협을 "거대한 승리"라 적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미국이 자랑한 희토류 유예도, 펜타닐 관세 인하도, 단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회담장에서 중국 경제를 "규모와 회복력이 막대한 한 편의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5.2퍼센트 성장했다는 숫자를 들었습니다. 한쪽이 승리라 부른 것을, 다른 쪽은 적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오히려 미국의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가 3,000개에 달하는데 중국은 900개뿐이라며, 희토류 비판은 미국의 이중잣대라고 받아쳤습니다.

미뤄진 것은 더 무거웠습니다. 대만이 그랬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눈을 보며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 다루면 충돌하고 대항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놓은 174단어짜리 통고문에서 대만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고문이란 회담이 끝난 뒤 양국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간추려 내놓는 짧은 발표문입니다. 미국의 그 짧은 글에는 경제 이야기만 있고 대만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사이 미국은 110억 달러어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140억 달러어치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과 19조 원. 회담장에서 오간 평화의 말과, 책상 위에 쌓인 무기 청구서가 따로 놓았습니다.

반도체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H200을 기업당 7만 5천 개까지 사도 된다고 문을 열었지만, 중국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H200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계산용 첨단 칩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런 칩이 수만 개씩 필요합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칩은 막되 한 단계 낮춘 H200은 조건부로 팔겠다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에 길을 터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칩에 목줄을 잡히느니 화웨이의 어센드 칩을 중심으로 자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칩 의제는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 안전 대화" 약속만 남긴 채 빈껍데기로 미뤄졌습니다.

이 모든 유예에는 같은 만료일이 박혀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펜타닐 관세도, 희토류 61호도, 50퍼센트 규칙도, 항만 수수료도, 24퍼센트 보복 관세의 유예도 그날을 향해 함께 굴러갔습니다. 부산의 거래는 평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갈래의 무기를 같은 날자에 걸어둔 1년짜리 휴전이었습니다. 휴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을 잠시 내려놓되, 언제든 다시 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개의 시계에 똑같은 알람을 맞춰둔 셈이었습니다.

유예되지 않고 남은 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25퍼센트가 매겨진 상호관세, 그 위에 깔린 10퍼센트 보편관세는 부산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희토류 공급망 역시 1년만 멈췄을 뿐, 그사이 미국은 자국 국방부 예산 10억 달러를 자국 최대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즈에 넣어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에 기댄 자원의 줄을 끊으려는 작업을, 휴전 기간에 오히려 서둘렀습니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내년 초 베이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 방문에서 매듭이 풀릴 거라 기대했습니다. 매듭을 묶은 사람들은, 그것을 풀 자리도 같이 예약해 두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묻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뒤, 이 다섯 개의 시계가 동시에 울리면 누가 먼저 손을 뗄 것인가.

1장 부산의 거래

미중 양국은 벼랑 끝에서 경제·안보 무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1년짜리 위태로운 휴전을 맺었습니다.

1년

모든 경제 조치의
유예 기한

0.1%

중국산 희토류 미량
통제 규칙 (공고 61호)

155%

미국이 예고했던
실효 관세율

미국은 펜타닐 관세 인하와 자회사 규제 유예를, 중국은 희토류 통제 보류와 대규모 미국산 콩 수입을 맞교환했습니다. 이 거래는 근본적인 평화 조약이 아니며, 치명적인 무기들의 만료일을 똑같이 맞춰둔 '시한부 휴전'에 불과합니다.

1장 부산의  NotebookLM

2장 미뤄진 방중, 이란이라는 변수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 들어갔습니다.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때렸고, 작전의 끝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백악관은 몇 주면 끝날 거라 보았습니다. 이란은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다른 곳을 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중동의 기름줄을 손으로 쥐려 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원유에 제재의 칼을 댔고, 두어 달 뒤에는 이란 원유에도 같은 칼을 댔습니다. 산유국의 수출길을 좁혀 값을 흔들고, 그 흔들림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의 끝에 2월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한 정권을 며칠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무너진 것은 정권이 아니라 그 계산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왜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안쪽이 넓고 바깥으로 나가는 입구가 좁은 항아리 같은 바다입니다. 그 좁은 목이 호르무즈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약 33킬로미터인 이 물길로, 세상의 석유 다섯 통 중 한 통이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가 퍼 올린 기름이 모두 이 한 줄기 물길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다른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 하나를 누르면, 멀리 떨어진 나라의 주유소 숫자판까지 흔들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고속정과 드론, 기뢰를 풀자 보험료가 치솟았고, 유조선들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멈춰 선 까닭이 중요합니다. 배가 침몰해서가 아닙니다. 위험해진 바다에 배를 들이밀려면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면 선주들은 배를 그냥 세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물길을 닫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상대로 쓰는 비대칭 전술입니다. 페르시아만 바깥에 배들이 줄지어 닻을 내렸습니다. 기름이 흐르지 않자 미국 주유소의 숫자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봄에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약속한 방문은 원래 4월이었습니다. 부산이 무엇이었는데 잠깐 짚겠습니다. 그 직전까지 두 나라는 관세와 희토류를 주고받으며 벼랑 끝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인 희토류의 수출을 죄자, 미국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말 부산에서 두 정상은 그 칼을 잠시 칼집에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통제의 전면 시행을 미루고, 미국은 관세를 내리고 일부 조치를 1년간 유예했습니다. 1년짜리

휴전이었습니다. 그 시한이 2026년 11월 10일에 끝납니다. 트럼프는 그 시한이 닿기 전, 봄의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몰아붙일 작정이었습니다. 관세를, 희토류를, 반도체를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 일정을 지웠습니다. 전쟁이 모든 산소를 빨아들였습니다. 한 위기가 너무 커지면 다른 모든 의제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 위기에 매달리느라 정작 준비하던 회담을 미루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조차 잡아두었던 대중국 회의를 미루고 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중은 한 달, 다시 한 달 밀렸습니다.

밀린 것은 날짜만이 아니었습니다. 회담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 갔습니다.

기름값을 잡지 못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가운데 치르는 의회 선거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유권자입니다. 백악관이 호르무즈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기름값을 잡으려면 호르무즈가 열려야 했고, 호르무즈를 열려면 이란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손은 워싱턴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란 원유의 가장 큰 손님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이란 기름의 정상적인 판로를 막아버린 탓에, 이란은 기름을 팔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기름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제재로 갈 곳을 잃은 이란 기름의 대부분이 선박끼리 바다 위에서 짐을 옮겨 싣는 방식으로 산동성 정유소로 흘러들었고, 그 값은 위안화로 치러졌습니다. 바다 위에서 짐을 옮겨 싣는 까닭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항구에서 실었는지 흔적을 흐리는 것입니다. 값을 위안화로 치른 것은 달러를 거치는 미국의 금융 감시망을 비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란의 전쟁 자금을 쥘 나라가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고속정을 띄우는 돈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중국의 정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동맹과 베이징에 군함을 보내 해협을 함께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짧고 분명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출장의 성격이 뒤집혔습니다. 시진핑을 압박하러 가던 사람이, 시진핑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호르무즈를 두고 중국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국이 도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압박이어야 할 말이 양보처럼 들렸습니다. 시진핑에게 사실상 통행증을 끊어준 셈이었습니다. 통행증이라는 말은, 이 문제로는 너를 추궁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면제를 뜻합니다. 추궁받지 않은 쪽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답도 그만큼 조용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자기 입으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속도 공개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지렛대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쪽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 상대는 더 불안해집니다. 열어줄 수도, 닫아둘 수도 있는 문 앞에 서서, 베이징은 굳이 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루킹스의 한 전직 정보분석관은 9월 워싱턴 회담을 앞둔 미중 관계에 기름띠 두 줄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띠는 바닥에 번진 기름처럼 언제든 미끄러져 충돌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을 가리킵니다. 그중 하나가 이란이었습니다. 중국이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작은 오해 하나로도 두 나라를 거친 충돌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5월, 트럼프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쟁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호르무즈는 여전히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승자로 가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 갔습니다. 이란이라는 변수 하나가, 아무도 자리에 앉기 전에 협상 테이블을 다시 깔아놓았습니다. 봄에 묻으려던 매듭은, 여름의 문턱까지 고스란히 따라왔습니다.

2장 미뤄진 방중, 이란이라는 변수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물류와 유가를 흔들며, 대중국 협상의 판도와 무게중심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33km

세계 석유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폭

11월

유가에 민감한 미국의 중간선거 시점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유가 상승의 압박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원유의 최대 고객인 베이징의 협조가 절실해졌습니다. 중국을 몰아세우려던 미국의 방중 일정은 지연되었고, 압박자였던 미국이 중국의 침묵 앞에 무언의 면제부를 쥐여주는 처지로 역전되었습니다.

2장 미뤄진 방중, 이란이라는 변수 본문 발췌
NotebookLM

3장 베이징의 침묵

회담이 끝나면 보통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읽고 함께 서명한 문장. 공동성명이라 부릅니다. 공동성명은 두 나라가 같은 말을 같은 자리에 적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합의를 했는지, 무엇을 함께 약속했는지를 한 문서에 담아 양쪽이 동시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두 나라가 적어도 한 장의 종이 위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 됩니다. 5월 15일 베이징에서는 그 종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나라가 각자의 종이를 따로 냈습니다. 같은 이틀을 두고, 워싱턴과 베이징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각자 따로 내는 그 종이를 외교에서는 통고문이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드아웃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각 나라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리는 짧은 안내문입니다.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때는 두 통고문의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사이가 어긋날 때는 같은 회담을 두고도 적는 내용이 갈라집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는지가 그 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나온 두 통고문은 겹치는 곳보다 어긋나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2026년 5월 14일과 15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국 지도자가 중국 땅을 밟은 것은 약 10년 만이었습니다. 첫 회담은 그보다 반년 앞선 2025년 10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두 사람은 1년짜리 휴전을 맺었고, 그 휴전의 시한이 2026년 11월 10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베이징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미국이 낸 종이는 174단어였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서처럼 짧고 건조했습니다. 174단어는 신문 기사 한 토막도 안 되는 분량입니다. 두 나라 정상이 약 10년 만에 마주 앉은 회담의 결과치고는 헛헛할 만큼 얇았습니다. 그 얇음 자체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적을 것이 많지 않았거나, 적고 싶은 것만 골라 적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보잉 여객기, 콩, 소고기, 새로 세울 위원회 두 개. 트럼프가 11월에 유권자에게 내보일 물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낸 종이는 A4 여러 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건이 아니라 질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시진핑이 직접 이름 붙인 새 틀이었습니다. 한쪽은 이번 분기 실적을 적었고, 다른 쪽은 다음 10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두 종이를 나란히 놓으면,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는 이 회담을 두 글자의 어긋남으로 정리했습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B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보잉, 비프, 빈즈, 그리고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모두 11월 전에 손에 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보잉은 미국이 만드는 여객기입니다. 비프는 소고기, 빈즈는 콩입니다. 셋 다 미국 농민과 노동자가 중국에 내다 파는 물건입니다. 11월이면 미국에서 큰 선거가 있었고, 트럼프에게는 농민의 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팔아치울 수 있는 물건을 협상 탁자에 올렸습니다.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T 세 개가 있었습니다. 대만, 관세, 기술. 모두 2049년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2049년은 중국이 세운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진핑이 들고 나온 세 글자는 그 100년을 지탱할 기둥이었습니다. 대만은 체제의 정통성, 관세는 경제의 방패, 기술은 미래의 자립입니다. 트럼프는 6개월짜리 청구서를 들고 왔고, 시진핑은 10년짜리 방어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계는 같은 탁자 위에서 다른 속도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챙긴 것과 못 챙긴 것이 갈렸습니다. 챙긴 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나라가 문제를 그때그때 풀려고 만든 상설 창구입니다. 무역위원회는 안보에 걸리지 않는 소비재와 농산물의 문턱을 낮추는 창구였고, 투자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도록 심사를 빠르게 풀어주려는 장치였습니다. 미국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사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안보를 따져 막는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위원회는 그 심사를 비전략 분야에 한해 빠른 길로 통과시켜 주려는 통로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이름이 그 뒤에 붙었습니다. 그리어는 미국의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 베센트는 나라의 돈을 쥐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면 단절이 미국 물가만 끌어올렸다는 교훈 끝에, 워싱턴은 관리형 무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째로 끊으려 했습니다. 이를 디커플링, 곧 탈동조화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끊자 중국에서 들여오던 값싼 물건이 사라지면서 미국 안의 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끊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완전히 끊는 대신, 안보에 걸리는 품목은 막되 그렇지 않은 품목은 관리하며 거래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관리형 무역입니다. 두 위원회는 그 방향 전환을 담을 그릇이었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170억 달러어치 농산물과 보잉 200대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기대한 숫자는 그보다 컸지만, 트럼프에게는 큰 숫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침묵은 관세 자리에 있었습니다.

관세는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올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높아지면 그 물건의 값이 올라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상대국 경제의 급소를 누르는 무기가 됩니다. 부산에서 두 나라가 맺은 휴전의 핵심이 바로 이 관세였습니다. 부산에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 추가 관세의 방아쇠를 1년간 당기지 않기로 했고, 그 대가로 중국은 희토류라는 자원의 수출 통제를 1년간 멈춰 주었습니다. 희토류는 미사일과 전투기,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핵심 원소로, 중국이 세계 공급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자원입니다. 부산의 휴전은 두 나라가 서로의 급소에서 손을 떼고 1년만 숨을 고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1년이 끝나는 날이 11월 10일이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 세상이 기다린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부산에서 묶은 1년 휴전을 연장한다는 말. 11월 10일이면 다섯 개의 시계가 같은 날 울립니다. 모두가 베이징에서 그 태업을 다시 감을 거라 믿었습니다. 회담 다음 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진핑과 휴전 연장 문제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재무장관은 한술 더 떴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고, 연말에 다시 만나 갱신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비워둔 것이 아닙니다. 시한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굴러가게 두었다는 뜻입니다. 휴전을 연장하려면 누군가 시계를 멈추고 태업을 다시 감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그 시계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계는 멈추지 않고 11월 10일을 향해 그대로 굴러갔습니다. 브루킹스의 한 분석가는 이번 회담을 두고 걸모습은 좋았으나 알맹이가 얇았다고 했습니다. 알맹이가 얇았다는 말은, 정확히는 11월로 가는 시계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회담에 들어갈 때 세상이 품은 가장 큰 기대가 휴전 연장이었는데, 그 연장은 일어나지 않았고 연장하겠다는 약속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빠진 것이 관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종이에선 희토류가 적혀 있었지만 중국 종이에선 없었습니다. 미국 종이에선 호르무즈가 적혀 있었지만 중국 종이에선 없었습니다. 호르무즈는 중동의 좁은 바닷길로,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이 길을 열어 두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종이에선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합의라 부른 것을, 중국은 적지 않는 방식으로 비켜 갔습니다. 적지 않는다는 것은 묶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통고문에 적힌 문장은 그 나라가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약속이 되지만, 적지 않은 문장은 언제든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이 모두에서, 회담장에서 가장 날카롭게 오간 단어 하나가 지워졌습니다. 대만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그 문제를 잘못 다루면 관계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고, 미국은 174단어 어디에도 그 단어를 적지 않았습니다. 경고에 침묵으로 답한 것입니다.

이 회담이 만든 단단한 결과물은 합의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약속이었습니다. 9월 24일, 시진핑이 워싱턴에 답방한다. 두 거인은 풀지 못한 문제를 한 아름 안고, 그것을 풀 자리를 또 한 번 달력에 박아 두었습니다. 베이징의 침묵은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월을 향해 굴러가는 시계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장 베이징의 침묵

동상이몽으로 끝난 베이징 회담은 핵심 의제인 '관세 휴전 연장'을 덮어둔 채 다음을 기약하는 빈껍데기였습니다.

174단어

'대만' 언급조차 빠진 미국의 짧은 통고문

0건

11월 만료 예정인 휴전 연장에 대한 합의

5 vs 3

미국의 단기 실적 '5 B' 대 중국의 장기 패권 '3 T'

1. 미국은 선거용 단기 실적(농산물, 위원회 등)에 집착한 반면, 중국은 2049년을 바라보며 대만·관세·기술이라는 장기 방어선을 쳤습니다.
2. 회담 전 세계가 주목했던 '휴전 연장'에 대해 양국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충돌을 향한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3장 베이징의 침묵 본문 발췌
NotebookLM

4장 11월 10일이라는 시한

부산에서 두 사람이 묶은 매듭에는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섯 개의 조치가 같은 날짜에 풀리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그날 0시를 넘기면, 1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기들이 한꺼번에 깨어납니다.

먼저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1차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합의는 평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튿날인 11월 1일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주고받은 제재 유예 조치들은 하나같이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멈추거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작이 같고 끝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1년 뒤 같은 날,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던 조치들이 한꺼번에 유예를 끝내게 됩니다.

무엇이 깨어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펜타닐 관세는 10퍼센트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해마다 수만 명을 죽이는 합성 마약입니다. 그 원료가 중국에서 흘러든다는 이유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20퍼센트의 징벌 관세를 매겼는데, 부산에서 중국이 원료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끊기로 하면서 그 절반인 10퍼센트로 깎였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도로 올릴 수 있는 조건부였습니다. 그 옆에는 유예된 24퍼센트 보복 관세가 누워 있었고, 그 뒤로 한때 145퍼센트까지 치솟았던 고율 관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관세는 결국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145퍼센트면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 오는 데 245달러를 내야 한다는 뜻이니, 그 정도면 교역 자체가 끊깁니다. 미국이 화웨이의 위장 계열사까지 묶으려던 50퍼센트 자회사 규칙은 1년 멈춰 있다가, 그날부터는 기한 없이 되살아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50퍼센트 규칙이 무엇인지 잠깐 풀어야 합니다. 미국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라는 명단에 올려 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습니다. 화웨이와 SMIC가 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이름의 작은 회사를 세워 그 회사를 통해 우회 수입을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에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회사는 자동으로 같이 묶이도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만 다른 페이퍼컴퍼니로 빠져나가는 길을 막는 빗장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이 빗장이 1년간 풀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10일부터는 다시, 그것도 기한 없이 잠기도록 못 박혔습니다.

중국이 칼집에 넣은 공고 61호, 곧 0.1퍼센트의 그물도 같은 날 다시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이쪽도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장치,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자석을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광물입니다. 그 가공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 10월에 공고 제61호를 꺼냈는데,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중국 밖에서 다른 나라 기업이 만든 물건이라도, 그 안에 중국산 희토류가 최종 제품 값의 0.1퍼센트만 섞여 있으면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게 했습니다. 남의 나라 공장에서 만든 제품까지 중국 법으로 묶는 셈입니다. 0.1퍼센트라는 문턱은 사실상 모든 제품을 그물에 넣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산에서 중국은 공고 제70호를 내고 이 통제의 세계 시행을 1년간 멈췄습니다. 11월 10일이 그 멈춤이 끝나는 날입니다. 중국 선박에 물리려던 항만 수수료도 그 줄에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해운과 조선업 장악에 맞서 준비한 무역법 301조 대응 조치였습니다. 입항하는 중국 선박마다 수수료를 물리는 방식이라, 되살아나면 물류가 엉킵니다.

같은 타이머. 다섯 개의 시계가 한 시각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그물이 다시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1년 전에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잠깐 조였을 때, 포드의 공장장은 공급이 하루하루 불투명하다며 라인을 멈췄습니다. 한 대의 차에 들어가는 그 작은 자석 하나가 없어서, 거대한 조립 라인 전체가 섰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그때를 두고 "거대한 세계 경제 위기가 터질 뻔한 벼랑 끝"이었다고 적었습니다. 11월 10일에 공고 61호가 깨어나면, 그 멈춤이 한 공장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록히드의 전투기 라인, 미사일 공장, 전기차 공장이 같은 부품 앞에서 멈춰 섭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의 F-35 라인도, 레이시온의 유도 미사일 생산도 그 줄에 있습니다. 같은 날 50퍼센트 규칙이 살아나면, 중국이 1년간 조용히 쌓아 올린 조달망은 하룻밤에 불법이 됩니다. 한쪽이 자원을 잠그고, 다른 쪽이 기술을 잠급니다. 서로의 급소를 같은 시각에 누르는 것입니다.

다섯 개의 조치가 왜 하필 같은 날에 풀리도록 맞춰졌는지 묻게 됩니다. 그것이 협상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50퍼센트 규칙과 관세와 항만 수수료를 1년 멈추고, 중국은 희토류 통제를 1년 멈췄습니다. 서로 같은 길이만큼 칼을 칼집에 넣은 것입니다. 한쪽이 먼저 칼을 빼면 다른 쪽도 곧바로 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똑같이 1년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은 누구 하나의 시한이 아니라 다섯 개가 한 줄로 묶인 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낱자를 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만나 갱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유로운 말이었습니다. 그 여유는 빌려 입은 옷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1월 3일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에 의회 의석을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여기서 지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발이 묶입니다. 그 전에, 9월 24일에 시진핑을 백악관 레드카펫 위에 세워야 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을 굴복시켰다는 그림 한 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계단을 밟는 시진핑의 모습 자체가 선거 유세장에서 가장 강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그는 계산했습니다. 그 그림을 얻으려고 그는 대만 무기 판매 서류에 서명을 미뤘습니다.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처지로 보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쪽은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시진핑보다 훨씬 짧고 다급한 정치 시계 위에서 달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시진핑의 시야에는 2027년 당대회가 있었고, 2049년이 있었습니다. 204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그 먼 해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내년 가을은 잠깐입니다. 그의 시계는 길었고, 트럼프의 시계는 짧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미국의 공개 자세와 실제 다급함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5월 베이징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휴전 기한을 미리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양국은 따로따로 발표문만 냈습니다. 휴전을 미리 늘려 두지 못한 채, 시한 만료 직전인 9월로 회담을 미뤄 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유를 부렸지만, 그 여유의 안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같은 1년을, 두 나라는 다르게 썼습니다. 미국은 희토류에서 중국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국방부가 자국 최대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즈에 돈을 넣고 최대 주주가 되었고, 킬로그램당 110달러의 가격 바닥을 10년간 보장했습니다. 가격 바닥을 정부가 받쳐 준다는 것은, 중국이 값을 후려쳐도 미국 광산이 망하지 않도록 떠받친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과거 험값 공세로 다른 나라 희토류 광산들을 줄줄이 문 닫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수법을 막으려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자석까지 한 줄로 잇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캐넌 광물을 분리하고 정제하고 자석으로 만드는 모든 단계를 중국 없이 갖추는 일입니다. 1년 안에는 끝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1년 동안 반도체 장비를 그러모았습니다. 규칙이 다시 잠기기 전에 살 수 있는 것을 사 두었습니다. 화웨이와 SMIC는 런칭페이가 내건 2028년 70퍼센트 자급 목표를 향해, 우회 수입과 비축에

매달렸습니다. 둘 다 같은 시계를 보면서, 한쪽은 방패를 두드려 펴고 다른 쪽은 창고를 채웠습니다.

이 단층선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끼어 있습니다. 11월에 통제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면 한국은 세 전선에서 동시에 흔들립니다. 무역 전선에서는 24퍼센트 보복 관세가 부활하고, 자동차와 배터리를 겨누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되살아납니다. 기술 전선에서는 50퍼센트 규칙이 살아나면서, 한국의 주력 상품인 고대역폭 메모리가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 그물에 묶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인공지능 칩 옆에 붙어 데이터를 빠르게 나르는 메모리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것이 미국 규칙에 묶이면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동시에 노출되는 덫에 빠집니다. 자원 전선에서는 전기차 모터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광물의 공급이 끊깁니다. 한국 공장의 가동 여부가 중국 상무부의 손끝에 매이게 됩니다.

11월 10일로 가는 길에 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9월 24일. 시진핑이 워싱턴에 답방하기로 한 날입니다. 트럼프가 5월 베이징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 공개 초청한 날짜입니다. 시한 만료를 한 달 반 앞둔 마지막 담판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협상의 주도권을 통째로 베이징에 넘겨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9월 24일 방문을 성사시키려면, 그 전까지 미국은 중국을 자극할 큰 수를 둘 수 없게 됩니다. 대만 무기 판매도, 새 반도체 규제도, 새 관세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선을 넘으면 시진핑은 성명 한 장으로 답방을 취소하고, 선거 직전에 희토류 밸브를 잠가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듭을 다시 묶지 못하면, 다섯 개의 시계는 약속대로 11월 10일 0시에 울립니다.

부산의 거래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1년짜리 알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는, 그 알람이 울리기까지의 1년 동안 관세와 반도체와 자원과 대만의 전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4장 11월 10일이라는 시한

11월 10일 0시, 잠들어있던 5개의 경제·안보 무기가 일제히 깨어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덮칩니다.

11월 10일

모든 시계가 가리키는
파국의 데드라인

5개

동시에 풀리는
치명적 제재 유예 조치

24%

부활을 앞둔
한국행 보복 관세율

그물이 걸히는 순간 중국의 희토류 밸브가 잠기고 미국의 50% 자회사 반도체 규제가 부활하여, 양국의 급소가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미중 양국이 방패와 창을 준비하는 이 거대한 단층선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무역·기술·자원 전선은 가장 취약한 상태로 위기에 노출됩니다.

4장 11월 10일 | NotebookLM

제 2 부

관세, 무너진 칼과 새로 뽑은 칼

5장 대법원이 칼을 부러뜨리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교구 회사가 있었습니다. 러닝 리소시스. 아이들 셈 막대와 장난감을 중국에서 들여와 파는 곳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이 회사의 경리 담당자는 수입 신고서에 세금 한 줄을 더 없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0퍼센트. 대통령이 펜타닐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가긴급경제권한법을 꺼내 매긴 관세였습니다. 그 한 줄이 한 달 뒤 20퍼센트로 올랐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짚겠습니다. 국가긴급경제권한법은 영어 약자로 IEEPA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나라 밖에서 오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만났다고 선포하면, 돈과 물자의 흐름을 막거나 묶게 해 주는 비상 권한입니다. 본래는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트럼프는 펜타닐을 그 위협으로 규정해 관세를 매겼고, 무역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겨냥한 상호관세도 같은 법을 뿌리로 삼았습니다. 평소라면 관세는 의회가 정한 세율과 절차 안에서 움직입니다. 비상사태라는 문을 열면, 대통령이 행정명령 한 장으로 세율을 올리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도 반도체 공장도 없는 이 회사가 한 일은, 미합중국 대통령을 법원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스와 여러 중소기업, 열두 개 주가 같은 질문을 들고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법 하나로 온 세상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헌법에 맞는가. 두 갈래로 낸 소가 하나로 묶여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답했습니다. 맞지 않다.

판결은 6 대 3이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썼습니다. 그의 논리는 헌법 제1조로 골장 갔습니다. 세금과 관세를 매기는 권한, 국민의 주머니에 손을 대는 권한은 오직 의회의 것입니다.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그 권한을 입법부 한 곳에만 두고, 행정부에는 한 조각도 떼어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걷는 칼은 국민이 뽑은 의회가 쥐는 약속입니다. 정부는 그 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줬으니 관세도 거기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츠는 그 법에 적힌 권한의 목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조사하고, 차단하고, 규제하고, 금지하고. 아홉 개의 동사 가운데 관세도 세금도 없었습니다. 규제한다는 말은 통제하고 조정한다는 뜻이지, 돈을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이라, 관세를 매기는 권한은 곧 세금을 매기는 권한이며, 그것은 헌법이 의회에 못 박아 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갔습니다. 그가 꺼낸 잣대를 주요질문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통째로 흔들 만큼 큰 권한이라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기려 했을 때 모호한 한 단어에 슬쩍 끼워 넣어서는 안 되고 분명한 문장으로 또렷이 적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관세에 쓴 적이 없었습니다. 비어 있던 자리를 트럼프가 처음 채웠고, 대법원은 그 자리가 원래 비어 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 안에서도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로버츠와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은 이 주요질문원칙을 앞세웠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케탄지 브라운 잭슨은 결론에는 같이 서면서도, 그런 거창한 원칙을 끌어올 것 없이 법조문을 평범하게 읽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헛갈리기 쉬운 대목을 짚겠습니다. 대법원은 IEEPA라는 법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 법을 관세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의 처분입니다. 의회가 맡긴 범위를 벗어난, 권한 밖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법으로 한 일이 권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IEEPA에만 기댄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는 발밑이 꺼졌습니다.

칼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부러진 칼 밑에 청구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걷은 관세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를 두고 숫자가 엇갈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걷은 돈이 2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추산이 있고, 앞으로 토해내야 할 환급액이 1,660억 달러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환급 청구 대상이 되는 통관 건수만 2,700만 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관세가 위법이라고만 했지, 그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는 한마디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입업체가 각자 변호사를 사서, 각자 법원에 소송을 내서, 각자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왜 진흙탕이 되는가. 세관은 수입 건마다 세액을 확정하고 장부를 닫는 청산 절차를 밟는데, 이미 닫힌 장부를 어디까지 다시 열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게다가 수입업체들은 그 관세 부담을 소비자나 거래처에 엮어 넘긴 경우가 많아, 돌려받은 돈을 누구 몫으로 나눌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부러진 칼 한 자루가, 수천만 건의 소송으로 바뀐 셈입니다.

더 묘한 일이 부산 쪽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넉 달 전 부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멈춰주는 대가로 펜타닐 관세를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깎아주겠다고 내밀었습니다. 그 10퍼센트가 미국이 내놓은 양보 카드였습니다. 깎아 주겠다는 말은 깎을 관세가 멀쩡히

살아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관세의 뿌리인 법 자체를 무효로 만들자, 깎아주겠다던 10퍼센트는 0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관세가 통째로 사라졌으니, 깎아 줄 것도 사라진 것입니다. 협상장에 들고 갈 카드가, 판결문 한 장에 증발했습니다. 부산에서 간신히 묶어 둔 1년짜리 휴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휴전이 풀리는 시한 2026년 11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캐버노 대법관이 경고를 적었습니다. 이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를 끝낸 것은 아니라고. 대통령은 그저 잘못된 법적 상자에 표시했을 뿐이며, 다른 상자를 골라 절차를 조금 밟으면 거의 같은 관세를 다시 매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IEEPA와 달리 의회가 절차와 위임을 또렷이 적어 둔 상자라, 이번 판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러뜨린 칼 옆에, 아직 뽑지 않은 칼이 여러 자루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판결이 나온 그날 오후에 이미 다음 칼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5장 대법원이 칼을 부러뜨리다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트럼프의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6 대 3

대법원 위헌 판결 비율

1,660억 달러

정부의 관세 환급 추산액

2,700만 건

환급 청구 대상 통관 건수

- 대법원은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부산 회담에서 합의했던 중국산 펜타닐 관세 10% 인하 카드도 함께 증발하며 무역 협상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본문 5장 대법원이 칼을 부러뜨리다

NotebookLM

6장 트럼프, 다른 칼을 집다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오후,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이라 선언한 바로 그날,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다음 칼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법으로 다시 매기겠다고. 칼 한 자루가 부러진 자리에서, 그는 무기고 쪽으로 손을 뺀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날 부러진 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IEEPA는 국가긴급경제권한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무역과 돈의 흐름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 한 장으로 펜타닐 단속을 명분 삼아 중국에 10에서 20퍼센트의 관세를 매겼고,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향해 무역적자를 핑계로 상호관세를 세우려 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 한 번에 범위도 금액도 제한 없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거친 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칼을 부러뜨렸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주머니에 손을 대는 과세 권한을 오직 의회에만 주었는데, IEEPA에 적힌 수입을 "규제"할 권한 안에 세금을 매길 권한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칼이 부러지자 그 위에 세워졌던 관세 장벽들이 일거에 법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나흘 뒤, 새 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역법 122조. 1974년에 만들어진 뒤 반세기 동안 한 번도 뽑힌 적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칼은 미국의 무역수지가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수입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합니다. 122조가 깨어나려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크고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 외환시장에서 급박한 달러 가치 하락, 또는 무역수지를 바로잡기 위한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 해 동안 사 들인 물건이 판 물건보다 1조 2,000억 달러어치나 많다는 숫자가 그 명분이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아무도 이 조항을 쓰지 않은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굳이 꺼낼 일이 없을 만큼 쓰임이 좁고, 무엇보다 날이 짧고 수명이 짧은 칼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4일, 미국은 이 조항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다시 덮었습니다. IEEPA로 매기던 관세를 거두고, 같은 자리에 122조라는 새 이름표를 붙인 것입니다.

녹슨 칼에는 두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날의 길이와 쓸 수 있는 날수였습니다.

122조는 세율을 15퍼센트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못 갑니다. IEEPA처럼 한도 없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조문 자체에 세율과 기간이 못 박혀 있는 칼이었습니다. 발동 다음 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15퍼센트를 올리겠다고 적었습니다. 법이 허락한

천장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상은 서류로 옮겨지지 않았고, 실제로 발효된 것은 10퍼센트였습니다. 세관은 10퍼센트로 매기라고 안내했습니다. 천장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발이 닿은 곳은 그 아래였습니다.

두 번째 흠이 더 무거웠습니다. 122조는 150일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다섯 달이 지나면 칼이 저절로 부러집니다. 그 뒤로 관세를 이어가려면 행정부가 마음대로 기간을 늘릴 수 없고, 의회가 법을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그 법을 순순히 통과시켜 줄 리 없었습니다. 상원에서는 캐나다에 매긴 25퍼센트 관세를 거두자는 결의안이 통과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122조는 방어막이라기보다,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한 모래시계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다음 칼을 미리 갈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였습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항입니다. 트럼프가 1기 때 중국에 3,000억 달러어치가 넘는 수입품에 최대 25퍼센트 관세를 쌓아 올린 바로 그 칼입니다. 처음 쓰는 낫선 무기가 아니라, 가장 손에 익은 주력 무기였던 셈입니다. 작동 방식은 122조와 다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비상사태가 아니라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러나 한번 매겨진 보복 관세에는 150일 같은 시한이 없습니다. 판결이 난 날, 트럼프는 이미 301조 조사 항목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잉 생산설비, 강제노동, 의약품 가격,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 디지털세. 게다가 2기 행정부는 중국의 해운과 조선업을 겨냥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에 특별 수수료를 물리는 301조 조사를 이미 돌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라는 절차를 거치면 관세는 비상사태가 아니라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어달리기의 그림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IEEPA가 쓰러진 자리를 122조가 다섯 달 동안 메우고, 그 다섯 달이 끝나기 전에 301조가 바통을 넘겨받아 영구적인 관세로 굳힙니다. 칼의 이름은 IEEPA에서 122조로, 다시 301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에 베이는 쪽이 치르는 값은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출품에 걸린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의 세율은 그대로였습니다. 죄목만 바뀌었을 뿐, 형량은 1달러도 깎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이 부러뜨린 것은 한 자루였습니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232조, 338조, 122조, 301조가 줄지어 남아 있었습니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338조는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나라를 겨냥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칼집만 다를 뿐, 모두 의회가 오래전 행정부에 쥐여 준 칼이었습니다. 머리 하나를 베면 두 개가 자라는 히드라처럼, 법적 근거는 갈아 끼우면 그만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을 쓴 캐버노 대법관이 그것을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대통령은 그저 잘못된 상자에 표시했을 뿐이며, 옳은 상자를 골라 절차를 조금 밟으면 거의 같은 관세를 다시 매길 수 있다고. 보충의견을 쓴 고서치 대법관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번 행정부가 권한을 손에 쥐면, 의회가 그것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이 역설에는 더 쓰라린 뒷면도 있었습니다. 부러진 IEEPA는 트럼프가 매긴 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2025년 10월 부산에서 중국에 내민 양보의 칼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 선적을 멈추고 희토류 역외 통제를 1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펜타닐 관세를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절반 깎아 주었습니다. 그 인하의 법적 뿌리가 바로 IEEPA였습니다. 대법원이 IEEPA를 통째로 권한 밖으로 돌리자, 미국이 양보라며 깎아 주겠다던 10퍼센트 카드 자체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산에서 봉합한 1년짜리 휴전은 다시 불확실성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휴전이 만료되는 날은 2026년 11월 10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를 향한 손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칼이 부러진 자리에서, 그 칼을 쥐었던 손은 곧바로 다음 칼자루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가장 먼저 노린 곳 가운데 하나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6장 트럼프, 다른 칼을 집다

IEEPA가 무너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동원해 관세 장벽을 **재구축**했습니다.

10%

122조로 부활시킨
전 세계 수입품 관세

150일

122조 관세의
최대 유지 한시 기한

301조

영구적 보복 관세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조항

-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는 반세기 동안 쓰지 않던 122조를 발동해 150일짜리 한시적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공백을 메웠습니다.
- 이후 시한이 없는 301조 조사를 병행하여 관세 이어달리기를 완성했으며, 결과적으로 무역국들이 치르는 부담은 1달러도 줄지 않았습니다.

본문 6장 트럼프, 다른 칼을 집다
NotebookLM

7장 멈춘 배, 유예된 수수료

배는 수입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관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신 통행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찾아낸 답이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영어 약자로 USTR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장사한다고 판단하면, 이 기구가 조사를 열고 보복 카드를 설계합니다. 그 보복의 법적 뿌리가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301조입니다. 교역 상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다고 보면, 무역대표부가 조사를 열고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같은 일방적 보복을 걸 수 있게 해 주는 조항입니다. 미국이 손에 쥔 통상 무기 가운데 가장 거친 축에 듭니다.

발단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철강과 해양 노조를 비롯한 미국의 노조 다섯 곳이 청원을 냈습니다. 철강노조, 전기노조, 보일러제조노조, 기계항공노조, 해양노조였습니다. 중국이 보조금으로 조선과 해운을 싹쓸이해 미국 산업의 숨통을 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달린 사람들이 먼저 목소리를 낸 셈입니다. 무역대표부는 한 달여 뒤 301조 조사를 열었습니다. 업계 의견서가 마흔 건 넘게 들어왔고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해를 넘긴 2025년 초, 무역대표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조선과 해운의 시장 지배는 불공정하다. 그 대응으로 나온 것이 입항 수수료였습니다. 중국에서 지은 배, 중국 회사가 모는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통행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관세가 아니라 통행료였을까요. 보통 301조 보복은 수입품 가격에 높은 관세를 얹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배는 가게에 진열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화물을 싣고 항구에 들어왔다 나가는 물건입니다. 산업의 생김새 자체가 다르니, 무기의 모양도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대신 입항 수수료라는 새 수단이 나온 것입니다.

수수료는 계단으로 설계됐습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순톤당 50달러. 이듬해 80달러, 그 뒤 110달러, 다시 140달러. 해마다 더 비싸지는 통행료였습니다. 배 한 척이 미국 항구에 닿을 때마다, 그 무게에 곱해진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큰 배일수록 더 깊이 베입니다.

중국은 같은 날 같은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중국도 미국과 연관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들어오면 특별 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톤당 400위안, 약 55달러에서 출발해 미국처럼 해마다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은 통행료가 태평양 양쪽 항구에서 동시에 켜졌습니다. 한쪽이 통행료를 켜면 다른 쪽도 같은 시각에 통행료를 켜줍니다. 서로의 배에 페널티를 주고받는 핑퐁이 바다 위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갔습니다. 같은 날, 한국 회사 하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이었습니다. 한화 시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그리고 두 개의 지주회사.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가 미국의 301조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배에 통행료를 매기던 싸움에,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이 끼어 베였습니다. 미국 편에 섰다는 이유로, 베이징이 그 회사의 미국 쪽 팔을 묶은 것입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중국과 거래하는 누구라도 그 회사를 함부로 상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미국 땅의 한국 법인 목에 걸린 셈입니다.

그리고 2주 뒤, 부산이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10월 30일 부산 회담의 그늘에서, 바다 위의 칼들도 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산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 앉은 1차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국은 서로의 급소를 겨누던 제재들을 한 묶음으로 1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칼을 거둔 것이 아니라, 칼집에 잠시 꽂아 둔 휴전이었습니다. 미국은 301조 입항 수수료의 시행을 1년 미뤘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0시 1분부터 2026년 11월 9일 밤 11시 59분까지, 1분이 모자란 정확히 1년이었습니다. 중국도 화답했습니다. 상무부가 한화오션 다섯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2개월 멈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통행료를 미뤘으니 우리도 보복을 미룬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 기업에 걸렸던 올가미가, 미중이 주고받은 휴전의 부산물로 풀렸습니다. 같은 11월 10일. 다섯 갈래 시계에 배 한 척이 더 걸렸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자리가 묘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중국 조선을 301조로 때리면서도, 정작 자기 배를 지을 손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상선 건조 능력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한 해에 짓는 큰 상선의 숫자를 세면,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묶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의 새 배 주문을 거대한 덩어리로 가져갔습니다. 군함을 찍어내는 속도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한참 앞질렀다는 경고가 의회에서 거듭 나왔습니다. 도크와 숙련 용접공과 수십 년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국 혼자 힘으로 무너진 조선업을 되살리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간과 능력의 공백을 메울 길은 하나였습니다. 세계 상선 시장을 중국과 나눠 가진 한국과 일본의 손을 빌리는 것. 그래서 백악관은 같은 발표문에서, 중국 제재를 미루는 한편 한국 및 일본과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 역사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견제할 상대는 중국이고, 빌려야 할 손은 한국이었습니다.

한화는 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를 사들여 미국 땅에 조선 거점을 두었고,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정비 사업, 영어로 MRO는 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아시아 국가가 미 해군의 이 일에 들어간 것은 한화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와 손이, 미국 해군의 작전을 떠받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HD현대도 미국 조선 인력을 길러내는 협력에 나섰습니다. 상선을 수출하는 무역 거래를 넘어, 한국의 기술이 미국 안보의 한 축을 떠받치는 자리로 격상된 셈입니다. 같은 1년 동안, 한국은 25퍼센트 상호관세의 칼날 아래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가 그 칼을 정면으로 맞는 사이, 조선과 알래스카 가스 구매는 관세를 깎을 협상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정면으로 맞는 손이 있으면, 내밀어 협상하는 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 회사가 같은 1년 안에서 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베이징에는 제재의 대상이었고, 워싱턴에는 부활의 동업자였습니다. 미중이 묶은 매듭 끝에 한국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멈춰 선 배 한 척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7장 멈춘 배, 유예된 수수료

해운·조선업으로 번진 통행료 보복전 속에서 한국은
제재 대상이자 안보 동업자라는 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50달러

미국이 매긴 중국 선박
순톤당 특별 수수료

1년

부산 회담을 통한
양국의 상호 제재 유예 기간

1곳

중국 보복 명단에 오른
한국 기업 (한화오션)

- 미중 양국이 서로의 선박에 통행료를 매기며 충돌할 때, 미국의 조사를 지지한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중국의 제재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 반면 붕괴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해군 함정을 정비하기 위해 한국 기술이 필수가 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안보 가치는 크게 격상되었습니다.

본문 7장 멈춘 배, 유예된 수수료

NotebookLM

제 3 부

반도체, 풀린 빗장과 닫힌 세관

8장 H200, 미국이 열고 중국이 닫다

2026년 1월 15일, 연방관보에 짧은 규칙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건조했습니다. 첨단 컴퓨팅 상품의 라이선스 심사정책 개정. 그 안에 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H200을 중국에 보낼 때, 이제 거부를 전제로 보지 않고 건별로 심사한다. 바이든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잠가두었던 빗장이, 한 줄로 풀렸습니다.

먼저 H200이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칩 한 줄에 인공지능의 똑똑함이 달려 있습니다. 챗봇이든 그림 그리는 모델이든, 거대한 인공지능은 수많은 계산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학습합니다. 그 계산을 빠르게 몰아쳐 해내는 부품이 엔비디아의 가속기입니다. H200은 그 가속기 가운데 윗자리에 있는 칩입니다. 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영어로 줄여 HBM이라 부르는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계산할 데이터를 잠깐 쌓아두는 창고입니다. 보통 메모리가 좁은 길이라면, 고대역폭 메모리는 차선이 여러 개인 넓은 길입니다. 길이 넓으면 데이터가 막히지 않고 흘러, 인공지능 학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칩 하나하나가 두 나라가 다투는 전선이 되었습니다.

그 빗장을 누가 잠갔다 풀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칩의 수출을 막거나 여는 일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맡습니다. 영어 약자로 BIS라 부르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위험하다고 본 물건을 외국에 못 팔게 막는 일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 두 번에 걸쳐 첨단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그때 쓴 원칙이 거부 추정입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일단 안 된다고 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보는 셈입니다. 2026년 1월의 규칙은 그 원칙을 건별 심사로 바꿨습니다. 신청 하나하나를 따로 들여다보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닫힌 문이 뚫림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문을 열면서 그 문에 자물쇠를 여러 겹 채웠습니다.

중국 열 개 기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징둥. 기업마다 H200을 7만 5천 개까지 살 수 있되, 엔비디아 본사나 공인 유통사를 통해서만 사야 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물량은 미국 고객에게 보내는 물량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됐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제3의 기관이 칩 성능을 미국 땅에서 검사해야 했고, 칩을 받는 쪽은 원격 접속을 막고 학습한 모델의 가중치를 빼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문틀이 좁았습니다.

자물쇠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풀어보겠습니다.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50퍼센트 물량 상한입니다. 중국이 미국 고객용으로 나간 칩의 절반보다 더 많은 H200을 가져갈 수 없게 천장을 씌운 것입니다. 중국의 연산 능력이 미국을 추월할 만큼 커지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높이를 정해둔 안전장치입니다. 제3의 기관이 미국 땅에서 칩을 검사한다는 것은, 중국에 보내기 전에 미국 안에서 성능이 약속대로인지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약속한 사양보다 센 칩이 몰래 섞여 나가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가중치를 빼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조금 낮선 말입니다. 가중치란 인공지능이 학습을 마치고 머릿속에 새긴 숫자 덩어리입니다. 그 숫자가 곧 인공지능의 실력입니다. 받는 쪽이 원격으로 칩에 몰래 들어와 그 숫자를 통째로 퍼가지 못하게 미리 단속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신원 확인과 약속 절차를 업계에서는 영어로 KYC, 즉 고객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이라 부릅니다. 누가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를 끝까지 따라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무거운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매출의 25퍼센트를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25퍼센트는 규칙 본문에 적힌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연방관보 규칙 어디에도 25퍼센트를 정부에 낸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한 달 앞선 2025년 12월, 트럼프가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며 그 대가로 매출의 4분의 1을 챙기기로 했다는 막후 거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전 여름에는 사양을 낮춘 H20을 팔며 15퍼센트를 받았습니다. 15에서 25로, 통행세가 올라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곧장 시비가 붙었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9항 5호는 어느 주에서 나가는 수출품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합니다. 라이선스 값으로 매출의 4분의 1을 걷는 것이 사실상 수출세가 아니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전직 관료들은 국가 안보 결정을 돈과 맞바꾸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위헌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되었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상무장관 러트닉은 중국이 받는 것은 엔비디아의 네 번째로 좋은 칩일 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문을 열었고, 통행세도 매겼고, 자물쇠도 채웠습니다. 남은 것은 중국이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연 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인도된 칩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세관이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에서 통관을 멈춰 세운 장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승인을 받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주문을 넣었다가 거두고, 계약 서명을 미루고, 유통 경로를 핑계로 거래를 늦췄습니다. 사겠다면 손님이 가게 앞에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미국 쪽 기록은 분명합니다. 다섯 달 동안 한 개도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멈춰 세운 손은 국경의 세관이 아니라, 사기로 한 중국 기업들 자신이었습니다.

그 뒤에 베이징의 손짓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자국 빅테크에 H200을 대량으로 사지 말라고 조용히 일렸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의 산업과 정보통신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 부처가 기업들에게 승인을 미루거나 구매를 자제하라고 무언으로 누른 것입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 뜻을 박았습니다. 미국산 칩에 기대는 것은 기술 주권을 내려놓는 일이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발행하는 신문이라, 그 사설은 베이징의 속내를 읽는 창구로 통합니다. 대신 화웨이의 어센드를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는 기자들 앞에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1월에 수출을 승인했다, 살지 말지는 중국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당근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성능 좋은 칩을 25퍼센트 통행세를 물고서라도 쓰면 당장은 이득입니다. 그러나 그 칩은 언제나 밸브가 잠길 수 있는 파이프에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그 파이프에 몸을 묶으면, 미국이 잠그는 날 중국의 인공지능도 멈춥니다. 시진핑의 지도부는 그 종속을 영원한 기술 식민지라 불렀습니다. 이 거부는 2020년부터 중국이 밀어온 쌍순환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밖에서 들여오는 것에 기대지 않고 안에서 굴러가는 경제를 키우겠다는 노선입니다. H200 한 장을 받는 순간 그 노선이 모래성처럼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장을 달아, 화웨이와 캄브리콘이 거대한 내수를 먹고 자라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배짱의 밑에는 딥시크가 있었습니다. 제재로 성능이 묶인 구형 칩과 600만 달러 안팎의 비용으로, 미국 빅테크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모델에 맞먹는 결과를 낸 중국 스타트업입니다. 칩을 막으면 인공지능도 막힌다던 워싱턴의 전제가, 그 한 번으로 금이 갔습니다. 하드웨어가 모자라면 소프트웨어로 메운다는 것을 딥시크가 보였습니다. 계산을 영리하게 줄이는 알고리즘으로, 칩의 물리적 결핍을 건너뛴 것입니다. 미국 칩 없이도 된다는 확신이 베이징에 퍼졌고, 그 확신이 H200을 밀어냈습니다. 중국이 진짜로 노린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잔뜩 붙은 H200이 아니라, 그 윗자리인 블랙웰까지 규제를 통째로 풀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받지 않음으로써 판을 흔드는 셈법입니다.

같은 1월, 다른 손이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한쪽 부서가 매출의 4분의 1을 받고 합법 수출을 열어주는 동안, 법무부는 H200을 중국으로 빼돌리던 밀수 조직을 적발해 기소했습니다. 합법으로는 팔겠다 하고, 밀수로는 잡아넣는 모순이 같은 달에 나란히 벌어졌습니다. 합법적인 대량 구매를 접은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유명 회사를 엮어 칩을 소량씩 들여오거나, 중동의 클라우드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연산 능력만 빌려 쓰는 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연 문 안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자리에 대한 답은 워싱턴이 아니라 선전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8장 H200, 미국이 열고 중국이 닫다

미국이 H200 수출의 빗장을 조건부로 풀었지만, 기술 종속을 거부한 중국은 단 한 개도 사지 않았습니다.

25%

미국 정부가 요구한
H200 판매 매출의 통행세

0개

수출 허용 후 5개월간
중국에 인도된 H200 칩 수량

중국은 25%의 통행세와 50% 물량 상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미국의 H200을 거부하고 기술 주권을 택했습니다. 하드웨어의 열세를 딥시크 등 자체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극복하며, 자국 칩 기반의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출처: 붙여넣은 텍스트 (8장)

© NotebookLM

9장 화웨이의 응답

2025년 2월 17일, 베이징의 한 회의실에 시진핑과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가 보고했습니다. 미국산 장비를 못 사 첨단 칩 생산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최근의 돌파구 덕분에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천 곳 넘는 중국 기업의 연합을 이끌며, 2028년까지 반도체 가치사슬의 70퍼센트를 자국 안에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H200의 문을 열기 열한 달 전이었습니다. 중국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센드라는 칩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어센드는 화웨이가 만드는 인공지능 전용 칩입니다. 챗봇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데, 그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부품입니다. 같은 일을 미국 회사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도맡아 왔습니다. 화웨이의 어센드는 그 엔비디아 칩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중국의 패입니다. 그 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자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거칠고 위태로운 작업인지가 드러납니다.

화웨이의 인공지능 칩 어센드는 설계를 화웨이가, 제조를 SMIC가 맡습니다. 설계와 제조를 한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 맡는 분업입니다. 화웨이는 칩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회로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정합니다. 그 밑그림을 실제 실리콘 조각 위에 새겨 칩으로 찍어내는 일은 SMIC가 합니다. SMIC는 중국에서 가장 앞선 파운드리, 곧 남의 설계를 받아 칩을 위탁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설계자와 공장이 한 나라 안에 다 있어야 자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동맹이 중국 반도체 자립의 중심축입니다.

본래 화웨이는 어센드를 대만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찍을 작정이었습니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칩을 만드는 대만 파운드리입니다. 7나노라는 말은 칩 안의 회로 선폭이 그만큼 가늘다는 뜻인데, 선이 가늘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육여넣을 수 있어 칩이 빠르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명단, 곧 엔티티 리스트에 오르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찍은 기업의 블랙리스트입니다. 여기 오르면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TSMC의 첨단 공정에도 미국 기술이 잔뜩 들어 있어, 화웨이는 정문으로 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웨이는 정문이 막히자 옆문을 냈습니다. 여러 위장 계열사를 내세웠습니다. 위장 계열사란 겉으로는 화웨이와 무관한 척하지만 실은 화웨이가 뒤에서 부리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자기 주문인 척 TSMC에 칩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화웨이는 TSMC로부터 어센드 910B의 로직 다이를 200만 개 넘게 빼냈습니다. 로직 다이란 칩의 핵심 두뇌 조각, 곧 계산을 실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완성된 칩이 아니라 그 알맹이입니다. 그 다이 두 개를 묶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붙여 한 개의 910C를 만듭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칩 바로 옆에 붙여 데이터를 빠르게 들고 내보내는 특수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칩은 다룰 데이터가 많아서 이 메모리가 막히면 두뇌가 아무리 빨라도 굼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두뇌 옆에 바짝 붙이는 첨단 포장 기술이 칩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렇게 두뇌 조각 두 개와 메모리를 한 덩어리로 묶는 작업이 패키징입니다. 포장 과정에서 결함이 나지만, 약 75퍼센트가 살아남습니다. 100개를 포장하면 75개쯤이 멀쩡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200만 개의 다이가 100만 개 안팎의 완성 칩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두뇌를 두 개씩 묶으니 개수가 절반으로 줄고, 거기에 포장에서 또 일부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메모리도 미리 쟁여 두었습니다. 미국이 메모리 통제를 본격화한 2024년 12월 직전, 위장 계열사를 통해 삼성에서 1년 치가 넘는 물량을 사 모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창고를 채워 둔 것입니다.

제조의 무게중심은 집 안의 SMIC로 옮겨 갔습니다. 밖에서 다이를 빼 오는 길은 언제 막힐지 모르니, 안에서 직접 찍는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상하이의 SN2 공장은 2021년 7월부터 7나노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첫 장비 통제보다 1년 넘게 앞선 시점입니다. 미국이 빔장을 걸기 전에 이미 7나노 라인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이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 왔음을 보여 줍니다.

문제는 장비였습니다. 가장 정밀한 칩을 만들려면 EUV라는 노광장비가 필요합니다. 노광은 빛으로 회로 무늬를 실리콘에 찍는 공정입니다. 사진을 인화하듯, 빛을 쏘아 회로 그림을 새깁니다. EUV는 파장이 극도로 짧은 빛을 써서 아주 가는 선을 한 번에 새기는 기계인데, 네덜란드 ASML 한 곳만 만들고,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EUV라는 최첨단 노광장비를 구할 수 없었던 SMIC는, 한 단계 낮은 장비로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새기는 방식으로 7나노를 만들었습니다. 가는 선을 한 번에 못 그으니, 굵은 붓으로 같은 자리를 겹쳐 그어 가늘게 만드는 식입니다. 손이 많이 가고, 한 번 더 새길 때마다 어긋날 위험이 쌓입니다.

그 대가가 수율이었습니다. 수율은 만든 것 중에 쓸 만한 것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100장을 넣으면 20장 안팎만 쓸 만하게 나왔습니다. 80장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새기다 보니 어긋난 불량률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 병목을 뚫으려고 화웨이는 자사 공장과의 협력사에 쟁여둔 미국산 장비를 SMIC로 몰래 옮겼습니다. 부족한 장비를 다른 곳에서 끌어와 SN2에 몰아준 것입니다. 장비를 판 미국 회사에는 구형 칩에만 쓰고 화웨이와는 무관하다고 돌려댔습니다. 그렇게 7나노 생산능력을 끌어올렸고, EUV 없이 5나노로 가는 불확실한 길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7나노보다 더 가는 5나노를, 그 가는 선을 한 번에 긋는 기계도 없이 겹쳐 새겨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될지 안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자립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칩의 진짜 힘은 하드웨어만이 아닙니다. 그 칩을 부리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명령 체계가 없으면 멍청한 돌덩이입니다. 개발자가 인공지능 모델을 짜면, 그 코드를 칩이 알아듣는 말로 바꿔 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가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수십 년 동안 길렀습니다. 세계의 개발자들이 쿠다에 익숙해져 있고, 도구와 예제와 노하우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그 두께가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입니다. 화웨이의 캔은 아직 덜 여물었습니다. 캔은 화웨이가 어센드용으로 만든, 쿠다에 맞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리는 놓였지만 아직 군데군데 끊기고 흔들립니다.

어센드 910B는 서류상 성능이 2019년 엔비디아 A100과 엇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해 자주 멈춥니다. 종이 위 숫자로는 6년 전 엔비디아 칩 수준을 따라왔지만, 막상 돌리면 캔이 흔들려 멈춰 섭니다. 숫자만큼의 제값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딥시크조차 어센드가 훈련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딥시크는 적은 자원으로 미국 모델에 맞먹는 결과를 낸 중국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그 까다로운 회사마저 어센드로는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시키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칩 한 세대가 뒤쳐져 있다는 화웨이 경영진의 말은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모자란 한 장을 여러 장으로 메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칩 하나의 효율이 떨어지면, 수많은 칩을 거대하게 묶어 전체 연산력으로 따라잡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약하면 여러 사람을 줄 세워 일을 나누는 식입니다. 효율 대신 규모입니다. 다만 칩을 많이 묶을수록 그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느라 새는 힘이 커지므로, 이 길도 공짜는 아닙니다.

여기에 딥시크가 손을 보았습니다. 제재로 묶인 구형 칩으로 미국 모델에 맞먹는 결과를 낸 그 회사가, 자기 모델을 어센드에서 잘 돌아가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모델 쪽에서 칩의 약점을 비켜 가도록 코드를 손본 것입니다. 화웨이는 글로벌 개발자 도구 재단에도 들어가, 세계의 코드가 자기 칩을 지원하도록 생태계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쿠다가 쌓은 두께를, 시간을 들여 자기 쪽으로 조금씩 끌어오려는 것입니다.

미국이 문을 여는데 중국은 왜 굳이 이 험한 길을 갔을까요.

미국이 연 문에는 통행세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출의 4분의 1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0을 팔면, 그 매출의 25퍼센트를 미국 정부가 떼어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워싱턴의 결정 한 번에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칩 수출을 풀었다 조였다 해 왔습니다. 한번 그 파이프에 몸을 묶으면, 잠그는 날 중국의 인공지능도 멈춥니다. 핵심 인프라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쥐여 주는 셈입니다. 시진핑의 지도부는 그 종속을 받아들이느니, 수율이 낮고 소프트웨어가 덜 여문 자국 칩을 100만 개 단위로 쌓아 올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효율은 잃되 주권은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선택이 화웨이의 완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국 칩으로 갈아탄 대가는 그대로 납습니다. 효율이 낮은 칩을 더 많이, 더 많은 전기를 들여 돌려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흔들리고, 5나노로 가는 길은 안갯속입니다. 어센드를 아무리 쌓아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한동안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화웨이가 지금 묶어 올리는 규모로도, 미국이 푼 H200 수준의 칩을 넘어서기까지는 2년가량이 더 걸린다는 것이 냉정한 진단입니다. 중국은 그 2년의 격차를 알면서, 그 격차를 견디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미국이 H200으로 던진 것은 당근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당근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밀수한 다이와 몰래 훔긴 장비와 쟁여둔 메모리로, 자기들의 손으로 빛은 칩을 골랐습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연 문 안쪽이 비어 있던 이유가, 선전과 상하이의 공장에 있었습니다.

9장 화웨이의 응답

화웨이는 낮은 수율과 제재 속에서도 밀수와 구형 장비를 동원해 7나노 인공지능 칩 자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00,000개 TSMC를 통해 우회 확보한
어센드 칩 핵심 두뇌 조각

20% EUV 없이 구형 장비로 겹쳐
새겨 낸 7나노 공정 수율

화웨이와 SMIC는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위장 계열사로 다이를 빼돌리고, 삼성의 메모리를 비축하며 제조 인프라를 지켰습니다.
엔비디아 쿠다(CUDA)에 밀리는 소프트웨어 한계를 압도적인 칩 물량 투입과 딥시크의 코드 최적화로 메우는 규모의 경쟁을 벌입니다.

출처: 붙여넣은 텍스트 (9장)

© NotebookLM

10장 50% 룰, 가장 조용한 무기

미국이 위장 회사 하나를 찾아내 제재 명단에 올리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중국이 종이 위에 새 회사 하나를 세우는 데는 며칠이면 됩니다. 화웨이도, SMIC도,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이 속도 차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옆에 새 구멍을 뚫었습니다. 미국이 망치를 들면 다른 자리에서 머리가 솟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두더지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무대부터 짚어 봅니다. 미국 상무부 안에는 산업안보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BIS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운영하는 명단이 엔티티 리스트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수출 제한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회사는 정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대개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기술이 적성국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방어막이 이 명단이었습니다.

방어막에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명단은 이름을 적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적힌 회사만 막힙니다. 그래서 화웨이와 SMIC, 그리고 메모리를 만드는 YMTC 같은 기업들은 중국 곳곳에 위장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세웠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제 공장도 직원도 거의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명단에 없는 이 회사들이 앞에 나서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와 부품을 대신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들인 물건은 뒤로 화웨이와 SMIC에 흘러갔습니다. 비대칭은 여기서 생깁니다. 미국이 새 위장 회사 하나를 찾아내 조사하고 명단에 올리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중국이 새 페이퍼컴퍼니 하나를 세우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막는 쪽은 느리고, 뚫는 쪽은 빨랐습니다. 두더지 게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2025년 가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그 게임을 단번에 끝낼 규칙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길고 건조했습니다. 특정 등재 기업의 계열사를 포함하도록 최종 사용자 통제를 확대한다. 시장은 짧게 줄여 불렀습니다. 50퍼센트 자회사 규칙.

작동 방식은 간단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가진 회사는, 이름이 무엇이든 자동으로 같은 통제 대상이 됩니다. 미국이 위장 회사의 이름을 일일이 찾아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화웨이가 절반 넘게 소유한 곳이라면, 간판이 무엇이든 한꺼번에 통제망에 묶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오염입니다. 모회사가 명단에 있으면, 그 밑의 그림자 회사들이 줄줄이 함께 잠깁니다. 며칠 만에 세우던 새 회사가, 세우는 순간 이미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명단에 이름이 적힌 모회사가, 자기가 지분 절반 이상을 쥘 자회사들을 끌어내려 함께 통제망에 가둡니다. 밑에 있는 작은 자회사 하나가 위에 있는 모회사 전체를 더럽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물들이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를 물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 50퍼센트라는 선 하나가 기준입니다. 화웨이나 SMIC가 그 선을 넘겨 쥘 회사라면, 회사 이름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같은 그물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퍼컴퍼니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 명단에 적는 수고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더지 게임의 망치가, 두더지가 솥을 구멍 전체를 미리 덮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기가 무서운 까닭은 시끄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관세는 숫자로 표가 납니다. 100퍼센트, 25퍼센트, 신문 1면에 박힙니다. 관세를 매기면 어느 나라가 얼마를 올렸다고 곧바로 헤드라인이 뜹니다. 보복이 오가고 협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50퍼센트 룰은 정의 한 줄을 바꿨을 뿐입니다. 지분 절반이라는 기준선 하나로, 보이지 않던 조달망 전체가 통째로 통제 대상이 됩니다. 폭발음도 없고 헤드라인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 그 회사들이 미국 기술에 손을 댈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조용하게, 가장 넓게 묶는 그물이었습니다.

이 그물은 미국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라는 또 다른 칼이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FDPR이라 부릅니다. 미국 밖에서 만든 물건이라도, 만드는 과정에 미국 기술이나 미국산 장비가 들어갔다면 미국의 통제를 받게 하는 규칙입니다. 반도체는 미국 기술 없이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네덜란드든 일본이든, 동맹국 기업이 만든 칩이라도 이 규칙에 묶입니다. 50퍼센트 룰로 새로 그물에 걸린 중국 회사들은, 미국 회사뿐 아니라 FDPR에 묶인 전 세계 기업과의 거래까지 한꺼번에 끊깁니다. 조용한 정의 한 줄이 지구 반대편 공장까지 닿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펼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걷혔습니다.

중국이 마주 잡은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중국 상무부는 공고 제61호를 꺼냈습니다. 희토류를 겨누는 조치였습니다. 희토류는 전투기와 미사일, 잠수함의 자석과

모터에 들어가는 금속입니다. 세계 정제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공고 61호는 중국 밖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아주 조금만 섞여 있으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을 그대로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미국이 50퍼센트 룰로 중국 반도체의 목을 조이려던 그 무렵, 중국은 공고 61호로 미국 방위산업의 목을 잡았습니다. 한쪽은 칩을 막고, 다른 쪽은 자원을 막았습니다. 두 손이 서로의 목에 닿은 자리에서 부산이 열렸고, 두 무기가 같은 테이블 위에서 함께 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10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벼랑 끝까지 밀려간 자리였습니다. 거래의 핵심은 두 무기의 맞교환이었습니다. 미국은 50퍼센트 룰의 시행을 1년 미뤘습니다.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중국은 그 대가로 희토류 역외 통제를 멈췄습니다. 반도체의 칼과 자원의 손이 한날한시에 거뒀진 것입니다. 칩을 막을 칼과 자원을 쥔 손을, 같은 테이블 위에서 1년간 동시에 내려놓은 거래였습니다.

이 유예는 폐기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둘은 다릅니다. 폐기는 규칙을 아예 없애는 것이고, 유예는 정해진 날짜에 칼이 다시 나오는 것을 전제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규칙에는 두 단계가 박혀 있었습니다. 1단계는 1년의 멈춤입니다.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50퍼센트 룰이 더했던 변경 사항 전부가 한시적으로 멎습니다. 2단계는 2026년 11월 10일, 멈췄던 통제가 기한 없이 되살아납니다. 상무부는 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 회사들을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규칙에 적어 두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휘두를 자리를 살피며 잠깐 멈춘 것입니다.

같은 합의를 두고 두 나라의 말이 갈렸습니다. 백악관은 이것을 역사적 승리라 불렀습니다. 중국의 어떤 공식 문서에도 50퍼센트 룰 유예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미국이 수출통제 품목을 3,000개나 쥐고 있으면서 900개뿐인 중국을 탓한다며 이중잣대라고 받아쳤습니다. 양보처럼 보이는 것을 양보라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베이징은 체면을 지켰습니다. 가장 조용한 무기가 멈춘 사실조차, 가장 조용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멈춘 1년은 중국에게 공간을 채울 시간이었습니다. 칼이 다시 나올 날짜를 알기에, 화웨이와 SMIC의 비축은 오히려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미국의 고대역폭 메모리

통제가 발효되기 직전, 녀 달의 틈을 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산 메모리를 1년 치 넘게 사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인공지능 칩에 붙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게 하는 부품입니다. 영어 약자로 HBM이라 부릅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속도를 좌우하기에, 중국이 가장 목말라하는 물건입니다. 빙하기가 올 날짜를 알고 있는 자가 공간을 더 맹렬히 채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한국에도 걸려 있습니다. 규칙이 살아나면, 한국의 장비와 소재 기업들은 거래 상대가 제재 기업의 절반 넘는 자회사인지 일일이 지분 구조를 뒤져야 합니다. 거래처 하나하나의 주주 명부를 들춰, 화웨이나 SMIC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넘기면 미국의 제재 위반이 됩니다. 이 준법 감시의 부담을 부산이 1년 미뤄주었을 뿐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가장 조용한 무기가 다시 켜집니다. 그날 같은 자리에서,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이미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10장 50% 룰, 가장 조용한 무기

미국의 광범위한 위장 기업 제재망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충돌하며 1년간의 아슬아슬한 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0%

제재 대상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를 자동 통제하는 기준

2026년

희토류 유예와 맞교환되어 50% 룰 통제가 다시 켜지는 시점

모회사가 명단에 있으면 모든 그림자 회사를 조용하고 넓게 묶어버리는 미국의 50% 룰은 위장 조달망을 무너뜨릴 핵심 칼날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이 미국 방위산업의 숨통인 희토류를 쥐고 흔들자, 양국은 부산 회담을 통해 두 무기의 작동을 한시적으로 멈췄습니다.

11장 삼성과 SK가 선 자리

인공지능 칩의 속도는 메모리에서 갈립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 부르는 이 부품이 칩의 혈관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상 둘뿐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024년 기준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HBM의 9할을 만듭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한 자릿수에 그칩니다.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달려가는데, 그 연료를 대는 손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HBM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칩이 하는 일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연산 장치가 있어도, 그 장치에 데이터를 제때 날라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HBM은 그 데이터를 나르는 길입니다. 보통의 메모리를 한 줄로 길게 깎아 도로라고 한다면, HBM은 여러 층을 위로 쌓아 올려 한꺼번에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입체 고가도로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 한 덩어리의 제조 원가에서 이 메모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아무리 비싸도, 그 안에 한국산 HBM이 박혀 있지 않으면 제값을 못 합니다.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이 뛰려면 한국의 손을 거쳐야 했다는 뜻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유율이 무기가 아니라 표적이 되었습니다.

세계 HBM의 9할을 한 나라가 만든다는 것은, 그 나라를 누르면 인공지능의 흐름 전체를 조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을 막으려 할 때, 중국으로 가는 모든 칩을 일일이 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칩의 혈관을 대는 손, 곧 한국의 두 회사만 단속하면 됐습니다. 강한 패가 곧 약한 자리가 되는 역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4년 12월 2일, 미국 상무부가 HBM을 처음으로 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통제 명단이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특정 물건을 특정 나라로 팔 수 없게 묶어 두는 목록입니다. 한번 그 목록에 오르면, 자기 회사 제품이라도 마음대로 수출하지 못합니다. 겨누는 곳은 분명했습니다. 자체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화웨이와 그것을 찍는 SMIC였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이고, SMIC는 그 칩을 실제로 생산하는 중국 최대의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문제는 그 칩의 메모리를 한국이 댄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규제의 잣대로 삼은 것은 메모리가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속도였습니다. 일정한 속도를 넘는 메모리는 통제 대상이 되고, 그 문턱에 못 미치는 옛날 메모리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예외로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쓰는 첨단 HBM은 그

문턱을 모두 넘습니다. 결국 사실상 모든 신형 HBM의 중국 수출이 막힌 셈입니다. 막힌 곳은 중국 본토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우려 대상으로 묶어 둔 여러 나라까지 같은 그물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라는 논리를 꺼냈습니다. 이 규칙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이 장의 나머지가 이해됩니다. 보통 한 나라의 수출 통제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건에만 미칩니다. 그런데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그 손을 국경 밖으로 뻗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회사가 만든 물건이라도,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한 번이라도 쓰였다면 미국의 허가 아래 둔다는 논리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는 미국 회사들이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HBM을 찍는 공장에든 그 미국산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장에서 한국 회사가 만든 HBM이라도, 만드는 과정에 미국산 장비가 쓰였으니 미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기와 같은 통제 체계를 갖춘 33개 동맹국에는 이 규칙을 면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 일본, 호주, 영국 같은 곳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인정하고 통제의 손을 거둔 것입니다. 그 면제 명단에서 세계 최대 HBM 생산국 한국이 빠졌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같은 다른 생산국들과 함께였습니다. 세계 HBM의 9할을 만드는 나라가 정작 면제 대상에서 빠졌으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 배제가 한국을 한미일 공동 통제에 끌어들이려는 압박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면제라는 당근을 한국 앞서만 치워, 미국이 주도하는 통제 협정에 들어오라고 떠민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만든 물건을 팔 때조차,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 도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빚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SK는 중국 안에도 거대한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은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찍고, SK는 우시에서 D램을, 다롄에서 낸드를 만듭니다. 낸드플래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이고, D램은 컴퓨터가 일을 하는 동안 잠깐 데이터를 올려놓는 메모리입니다. 두 회사가 2020년 무렵 중국 시설에 부은 돈이 200억 달러를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28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번 공장을 지으면 쉽게 옮기지 못합니다. 그 돈은 중국 땅에 박혀 빠지지 않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공장들은 검증된 최종사용자라는 자격으로, 미국산 장비를 건건이 허가받지 않고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검증된 최종사용자, 영어로 VEU라 부르는 이 자격은 미국이 믿을

만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주는 일종의 통행증입니다. 이 통행증이 있으면 장비 하나 들일 때마다 미국에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은 오랫동안 이 통행증으로 굴러갔습니다. 2025년 9월, 미국이 그 자격을 거둬들였습니다. 그해 말로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통행증이 사라진 자리에는 해마다 심사받는 사이트 라이선스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두 회사는 해마다 어떤 장비를 얼마나 들일지 미국에 미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공장을 돌리는 허가는 내주되, 생산능력을 늘리거나 기술을 고도화하는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던 기계는 계속 돌게 두되, 새 기계를 더 들이거나 더 나은 공정으로 갈아타는 길은 막은 것입니다. 중국 공장은 멈추지는 않되, 더 자라지도 못하게 묶였습니다.

이것이 이중 노출입니다. 한쪽에는 미국이, 다른 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메모리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절반 안팎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그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한국 메모리가 가서 팔리는 곳이 바로 그 통제의 대상국이라는 데에 비극이 있습니다. 미국이 막으라는 곳이 한국이 먹고사는 곳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칩스법에 떠밀려 미국 본토에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칩스법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미국이 만든 법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동시에,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라고 압박하는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에, SK는 인디애나에 새 공장을 세우는 중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한국이나 대만에 짓는 것보다 평균 30퍼센트가 더 듭니다. 중국에 묶인 매몰 비용과 미국이 내미는 투자 청구서, 두 장의 고지서를 동시에 받아 든 것입니다. 중국에 부은 돈은 빼지도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새 돈은 더 비싸게 치러야 합니다.

위아래로도 눌렸습니다. 첨단 HBM은 미국의 통제에 막혀 위가 닫혔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메모리를 만드는 길은 미국이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정부 보조금을 업고 범용 D램을 저가로 쏟아내며 시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중국이 키운 메모리 회사입니다. 첨단 제품은 아직 못 만들지만, 흔하게 쓰는 범용 메모리를 정부 돈으로 받쳐가며 혈값에 풀었습니다. 위에서 비싼 시장은 미국에 막히고, 아래에서 싼 시장은 중국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위는 막히고 아래는 밀리는 샌드위치였습니다.

부산이 잠깐 숨을 틔워주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트럼프와 시진핑이 부산에서 만난 1차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목을 조르던 무기를 같은 무게로 맞바꿨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멈추기로 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그 공급이 끊기면 한국 공장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50퍼센트 룰의 시행을 1년 미뤘습니다. 50퍼센트 룰이란,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까지 자동으로 통제 명단에 끌어 넣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살아 있으면, 한국 기업은 거래하는 중국 회사가 제재 대상의 위장 자회사인지 일일이 지분을 뒤져가며 따져야 합니다. 50퍼센트 룰이 1년 멈추면서, 거래 상대의 지분 구조를 일일이 뒤져야 하는 부담이 미뤄졌고, 희토류 통제가 풀리며 공장이 멈출 위기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에는 2026년 11월 10일이라는 만료일이 박혀 있었습니다. 멈춘 칼날은 1년 뒤 정확히 그 자리로 돌아오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어진 베이징 회담은 반도체를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두 정상은 다시 마주한 2차 회담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미뤄둔 시한을 늘려줄 합의를 한국 기업들은 기다렸지만, 그런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세 휴전조치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그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H200의 문을 열었지만 중국은 사지 않았고, 세상은 미국의 생태계와 중국의 생태계로 갈라졌습니다. H200은 엔비디아가 만든 차세대 인공지능 칩입니다. 미국은 그 칩을 중국에 조건부로 팔 수 있게 길을 텃지만, 중국은 한 개도 사지 않았습니다. 미국 칩에 다시 매이느니, 효율이 떨어져도 자기 칩으로 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한쪽은 미국 칩을 중심으로, 다른 쪽은 중국 칩을 중심으로 따로 도는 세계가 굳었습니다. 평행 우주였습니다. 그 두 우주 사이에 한국이 끼었습니다.

삼성과 SK는 인공지능 시대 전체가 그 위에서 돌아가는 패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세계 HBM의 9할입니다. 그런데 그 패를 어떻게 쓸지는 스스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면제 명단에서 빼면 빠진 채로, 중국이 광물을 만지작거리면 긴장한 채로, 두 거인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강한 패를 쥐고도 가장 약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의 마지막 부에서 정면으로 다시 펼쳐집니다.

11장 삼성과 SK가 선 자리

세계 HBM 시장을 제패한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가장 치명적인 청구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9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한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28조 원

철수할 수도, 기술을 고도화할 수도 없이
중국에 묶인 매몰 비용

글로벌 AI 칩의 핵심 혈관인 HBM을 독점하고도, 미국 주도의 통제 명단과 칩스법에 얽매어 수출과 투자의 자율성을 잃었습니다. 위로는 미국의 첨단 메모리 수출 통제에 막히고 아래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며, 강한 패를 쥐고도 가장 약한 자리에 섰습니다.

출처: 붙여넣은 텍스트 (11장)

📄 NotebookLM

제 4 부

자원과 에너지, 대청 보복의 시대

12장 0.1%의 그물

2025년 5월, 시카고의 포드 공장이 일주일 동안 멈췄습니다. 익스플로러를 찍던 라인이었습니니다.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서였습니다. 정확히는 그 부품 안에 들어가는 자석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자석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희토류가, 중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드의 최고경영자는 희토류 공급이 하루 앞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희토류라는 말부터 풀어야겠습니다. 이름은 흙처럼 흔치 않다는 뜻이지만, 사실 땅속에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캐고 거르는 일입니다. 여러 금속이 한데 섞여 나와서, 하나하나 떼어내려면 화학 공정을 수십 번 거듭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더럽고,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손을 놓는 사이, 중국이 이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채굴과 제련, 자석 제조까지 거의 한 손에 쥐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금속들이 왜 중요한가. 그 비밀은 자석에 있습니다.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은 작고 가벼우면서도 힘이 셉니다. 전기차 모터를 돌리고, 풍력발전기의 날개를 움직이고, 미사일의 방향을 잡는 자이로스코프 안에서 일합니다.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그 자석이 뜨거워져도 자성을 잃지 않게 붙듭니다. 모터가 달아오르고 엔진이 불을 뿜는 곳일수록 이 두 원소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트륨은 레이더 시스템과 제트엔진 터빈 블레이드의 고온 세라믹 코팅에 쓰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가루가 무기의 심장에 박혀 있는 셈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런 원소들을 황금 나사라고 부릅니다. 골든 스크류,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멈추는 나사입니다. 책상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나무판이 아무리 좋고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돌을 잇는 나사 한 개가 없으면 책상은 서지 못합니다. 무기도 그렇습니다.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미사일 유도장치와 전기 모터에 들어갑니다. 이트륨은 제트엔진 터빈과 레이더에 쓰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희토류가 417킬로그램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는 2천 킬로그램이 넘게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빠지면 무기가 멈춥니다.

이 나사를 쥐 손이 2025년 4월 4일 처음 움직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공고 18호를 냈습니다. 정식 이름은 일부 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실시 결정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출관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그리고 양용물항 수출관제조례가 동원되었습니다. 양용물항이란 민간에도 쓰이고 군사에도 쓰이는 이중용도 품목을 가리킵니다. 같은 자석이 전기차에도, 미사일에 들어가니, 그 이름으로

묶으면 통제할 명분이 생깁니다.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일곱 가지 희토류와 그 자석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원소만 막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든 합금과 산화물과 자석까지 낱알이 쪼개 묶었습니다. 사마륨 하나만 보아도, 금속 사마륨은 물론 사마륨코발트 합금, 사마륨철 합금, 각종 표적재, 산화 사마륨과 그 혼합물까지 빠짐없이 목록에 올렸습니다. 빠져나갈 틈을 두지 않으려는 촘촘한 그물이었습니다.

세계가 몇 주 만에 휘청였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고, 포드의 라인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5월 기준으로 중국이 가전제품부터 F-35 생산까지 두루 쓰이는 핵심 광물과 합금 열여섯 가지의 수출을 조였다고 집계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이 90일짜리 휴전을 맺어 공급을 겨우 되살렸습니다. 숨통은 트였지만 임시였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가 곧 다음 충돌의 날짜를 미리 그어둔 셈이었습니다.

그 90일이 끝난 10월, 부산 회담을 며칠 앞두고 중국은 더 무거운 칼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칼날이 국경 밖으로 뻗었습니다.

10월 9일의 공고 61호였습니다. 정식 이름은 역외 관련 희토류 품목 수출 통제 실시 결정입니다. 역외라는 두 글자가 핵심입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다스리는 보통의 법과 달리, 이 공고는 중국 밖에서 외국 사람이 외국 물건을 두고 하는 거래까지 손을 뻗습니다. 핵심은 한 줄짜리 숫자였습니다. 0.1퍼센트. 중국 밖에서 만든 물건이라도, 그 안에 든 중국산 희토류의 가치가 완제품 가치의 0.1퍼센트만 넘으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풀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에 중국산 가루가 0.1퍼센트만 섞여도, 베이징의 허락을 받아야 판다. 거기에 더해, 중국산 희토류를 캐고 제련하는 기술을 써서 외국에서 만든 물건도, 중국산 희토류를 제3국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모두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건과 기술과 경로, 세 갈래를 한꺼번에 묶어맷습니다. 그리고 미군 같은 해외 군사 사용자에게 가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제 명단이나 관심 명단에 오른 기업, 그 기업이 지분 절반 넘게 된 자회사까지 같은 줄에 묶였습니다.

이 논리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라는 칼을 써 왔습니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 FDPR이라 부릅니다. 미국 기술이나 장비가 조금이라도 쓰인 물건이면 세계 어디서 만들었든 미국의 통제를 따르라는 규칙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국이나 대만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그 안에 미국산 설계나 장비의 흔적이 있으면 미국이 그 물건의 행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의 숨통을 조인 바로 그 칼입니다. 미국은 이 규칙 하나로 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칩을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국은 그 칼을 그대로 본떠, 희토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로 한 일을, 중국이 광물로 되돌린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을 중국판 FDPR이라 불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이 0.1퍼센트 규칙과 역외 적용을 가리켜 새롭고 엄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물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국 기업은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산 희토류라는 유일한 원료 공급선을 지킬 것인가, 미국 고객을 지킬 것인가. 게다가 중국의 허가제는 중국산 희토류를 사는 수입자에게 그 물건이 끝내 누구 손에 가는지까지 추적해 보고하도록 시킵니다. 숨길 데가 없습니다. 미국 고객에게 팔다 적발되면 원료가 끊깁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과의 거래를 줄이는 쪽이 안전하다고 계산하게 됩니다. 중국이 금수 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제3국 기업들이 스스로 미국에서 발을 뺍니다. 베이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손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구조를 짰 것입니다. 통제의 집행을 외국 기업의 자기검열에 떠넘긴 셈입니다.

유럽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는 이 충격을 유럽의 전율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자기 공급망 안에 중국산 희토류가 몇 퍼센트 섞여 있는지 점검하는 패닉이 번졌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전차 자석의 원산지를 긴급 감사했고, 프랑스의 탈레스는 레이더 부품을 추적하는 데 두 달을 썼습니다. 닛케이는 이를 두고 광석이 아니라 기술이 인질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원을 빼앗기는 것을 넘어, 그 자원을 다루는 솜씨까지 베이징의 허락 아래 놓였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통제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같은 미국 방산기업의 시가총액 47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포탄 한 발 쏘지 않고, 허가 권한 하나가 수십조 원을 날렸습니다. 미 국방병참국이 쥔 비축은 디스프로숨 14개월 치, 스칸듐은 다섯 달 치에 불과했습니다. 공간이 비어가는데 새로 채울 길이 막힌 형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오래도록 휘둘러 온 칼이 똑같은 모양으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희토류의 80에서 90퍼센트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전기차 모터에 쓰는 마그네슘은 거의 전부, 반도체용 산화텅스텐도 열에 아홉이 중국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배터리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조달 경로가 중국산 광물과 가공 소재에 매여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나 SK가 만든 메모리에 중국산 광물이 미량 섞이고 그것이 미국 국방망으로 흘러가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광물 공급을 합법적으로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메모리란 인공지능 칩에 붙는 고대역폭 메모리, 곧 HBM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를 위로 쌓아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나르는 부품인데, 지금 세계가 인공지능에 목을 매면서 한국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만드는 물건입니다. 그 할로마저 베이징의 도장 아래 놓인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팔려다 중국에 맞아 공장이 멈추는 자리. 두 고래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새우의 자리였습니다.

부산이 이 그물을 1년 걸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벼랑 끝에 마주 앉은 트럼프와 시진핑은 맞교환을 성사시켰습니다. 중국은 공고 70호로 18호와 61호의 시행을 잠정 중단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50퍼센트 룰을 멈췄습니다. 50퍼센트 룰이란 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절반 넘게 가진 자회사까지 같은 통제를 받게 하는 미국 쪽 규칙입니다. 서로 진 칼을 동시에 칼집에 넣기로 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회담 직후 모든 희토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물을 걸으면서도 한쪽 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군수용으로 흘러가는 물건만큼은 끝까지 가려내겠다는 별도의 장치를 남겨둔 것입니다. 표면으로는 통제를 풀되, 미군과 방산으로 향하는 빗장 하나는 끝까지 직접 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0.1퍼센트의 그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26년 11월 10일에 다시 펼쳐지도록 접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12장 0.1%의 그물

완제품에 중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되어도 거래를 통제하는 중국판 역외 통제망이 가동되었습니다.

0.1% 외국 완제품 내 중국산 희토류 통제 기준선

417kg F-35 전투기 1대에 들어가는 희토류 질량

90일 임시 휴전 기간 (다음 충돌의 시한)

미국의 반도체 통제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 광물에 적용한 조치로, 외국 기업 스스로 미국과의 거래를 끊도록 유도합니다. 한국의 반도체(HBM)와 전기차 산업 역시 두 패권국 사이에서 핵심 소재 조달이라는 치명적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출처: 붙여넣은 텍스트 (12장)

📖 NotebookLM

13장 미국의 반격, MP머티리얼즈

2017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경계의 모하비 사막에 직원 여덟 명짜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마운틴 패스. 1980년대까지 세계 1위였던 미국 희토류의 심장이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원가를 못 맞춰 채굴을 멈췄고, 파산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틴스키가 그 광산을 인수했을 때,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습니다.

마운틴 패스의 내력은 미국 희토류의 흥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미국은 희토류를 캐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일을 자기 땅에서 다 했고, 그 중심이 이 광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희토류가 미국산보다 훨씬 싼 겁니다. 원가를 맞출 수 없자 미국은 캐는 일을 멈췄습니다. 한 나라가 한 산업에서 통째로 물러난 것입니다. 리틴스키가 연방 판사의 관리 아래 있던 이 폐광을 사들였을 때 직원은 여덟 명이었지만, 그 뒤 8년 동안 이 광산은 약 1,000명을 거느린 세계 두 번째 희토류 광산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미국 땅에서 캐고, 분리하고, 정제까지 한곳에서 해내는 유일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8년 뒤, 그 광산에 미국 국방부가 들어왔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아침, MP머티리얼즈가 투자자 전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와 변혁적 민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발표였습니다. 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상장기업의 지분을 직접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된다. 국방부는 4억 달러를 넣어 전환우선주를 샀고, 신주인수권까지 챙겨 지분 15퍼센트로 회사의 가장 큰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유시장의 본고장에서, 국가가 기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낯선지 짚어 봅니다. 전환우선주란 회사가 새로 찍어 파는 주식인데, 정해진 값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앞으로 정해진 값에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방부는 이 둘을 함께 쥐었습니다. 주당 전환가는 30.03달러로 못 박혔고, 둘을 모두 보통주로 바꾼다고 치면 국방부 손에 들어오는 지분이 전체의 15퍼센트였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망해도 국가가 구해 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자유시장을 누구보다 크게 외쳐 온 그 나라의 정부가, 무기에 쓰일 광물을 위해 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보다 무거운 것은 국방부가 건 두 개의 10년짜리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는 가격 바닥이었습니다.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에, 국방부가 킬로그램당 110달러의 최저가를 보장했습니다. 시장 값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국방부가 메웁니다. 다른 하나는 구매 보장이었습니다. 새로 지을 공장에서 나오는 자석을 10년간 전량 사주거나 팔리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위험을 국가가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가격 바닥이 어떻게 일하는지 풀어 봅니다.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은 강한 영구자석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그리고 전투기와 미사일에 들어가는 자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값이 출렁이면 만드는 회사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킬로그램당 110달러. 시장 값이 80달러로 떨어지든 49달러로 무너지든, 회사는 110달러를 받습니다. 모자란 차액은 국방부가 채워 줍니다. 구매 보장은 그 우산의 다른 쪽입니다.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소용이 없으니, 새 공장에서 나오는 자석을 10년간 전부 사주거나 팔리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값도 받쳐 주고 팔리는 것도 받쳐 주니, 시장이 떠안던 위험을 국가가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왜 국가가 여기까지 했을까요. 중국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을 만드는 원가는 킬로그램당 50달러쯤 됩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을 시도하자, 중국은 가격을 내리눌렀습니다. 2024년 170달러대였던 값을 49달러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자기 원가보다도 낮은 값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파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국 기업이 생겨나기 전에 싹을 말리는 것입니다. 한 미국 기업 임원은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정제 시설을 막 돌리려는 순간 중국이 값을 원가 두 단계 아래로 무너뜨려 자본을 메마르게 했다고. 국방부의 110달러 바닥이 그 문제를 테이블에서 치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약탈적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잠깐 손해를 보더라도 값을 원가 아래로 떨어뜨려 경쟁자를 말려 죽이고, 경쟁자가 사라지면 다시 값을 올려 본전을 뽑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자체 생산망을 만들려 하자 중국 생산자들에게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청문회 자료는 전합니다. 49달러는 만드는 데 드는 50달러보다도 1달러 낮은 값입니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는 뜻입니다. 막 정제 설비를 돌리려던 회사로서는, 들어오던 투자가 끊기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방부의 110달러 바닥은 그 칼끝을 막는 방패였습니다.

국가가 위험을 걷어내자 민간 자본이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더해, 마운틴 패스의 무거운 희토류 분리 능력을 키우라며 1억 5,000만 달러를 따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바닥을 깔자,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1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고, 닷새 뒤 애플이 5억 달러를 들고 와 재활용 자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하나가 마중물이 되자, 말랐던 자본이 다시 흘렀습니다.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한 바가지 물을 부어 줘야 합니다. 국가가 그 한 바가지를 부었더니, 위험해서 멀리하던 민간 돈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구매 보장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자석 공장은 10X 시설이라 불립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다 지어지면 미국 안에서 만드는 희토류 자석 생산 능력이 연간 1만 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반격은 한 회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국방부와 상무부, 에너지부 등 다섯 기관을 동원해 광물 공급망에 73억 달러를 쏟았고, 사우디와 브라질과 호주의 광산에까지 국가 자본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반격입니다. 그런데 이 반격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광산을 허가받고 경제성을 따지고 실제로 돌리기까지, 미국에서는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광석을 캐는 것과 그것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어려운 쪽은 정제입니다. 캐는 일은 땅을 파면 됩니다. 정제는 다릅니다. 희토류 열일곱 가지가 한 광석 안에 뒤섞여 있어, 화학으로 하나씩 떼어 내야 합니다. 비슷한 성질끼리 붙어 있어 떼어 내기가 까다롭고, 수율을 끌어올리고 값을 낮추는 데는 오랜 손때가 듭니다. 중국은 1950년부터 70년 가까이 그 기술을 쌓았습니다. 희토류 특허만 2만 6천 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무거운 희토류의 가공은 세계의 99퍼센트를 중국이 합니다. 30년 축적한 수율과 가격을, 5년 안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2025년 마운틴 패스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8,900톤을 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그해 쓴 양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만 8천 톤은 수입해야 했고, 그 수입의 71퍼센트가 중국산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아무리 돈을 부어도, 1년 안에 독점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돈은 단번에 부을 수 있어도, 30년 쌓인 솜씨와 설비는 단번에 살 수 없습니다. 새 자석 공장이 2026년 여름부터 돌기 시작하면 중국 의존이 조금씩 줄겠지만, 완전한 자급까지는 아직 먼 길입니다.

이 시간의 공백이, 부산에서 미국이 물러선 진짜 이유였습니다.

중국이 자석을 조이면 미국의 전투기 라인과 미사일 공장이 멈춥니다. 그 약점을 막을 자국 공급망은 10년 뒤에야 완성됩니다. 50퍼센트 룰이란,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이 절반 넘게 지분을 쥔 자회사까지 똑같이 제재로 묶는 미국의 규칙입니다. 미국이 쥔 반도체 카드가 그것이었습니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산에서 그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50퍼센트 룰을 1년 멈추는 대가로,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1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맺은 이 휴전은 1년짜리였고, 2026년 11월 10일이면 시한이 끝납니다. 미국이 받아 든 것은 진통제였습니다. 1년짜리였습니다. 정작 필요한 치료에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국가가 시장을 다시 짤 수는 있었지만, 시간만은 다시 짤 수 없었습니다.

13장 미국의 반격, MP머티리얼즈

미국 국방부는 희토류 자립을 위해 자유시장의 금기를 깨고 민간 광산 기업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15%

미 국방부가 확보한 MP머티리얼즈 지분율

\$110

중국의 약탈적 가격(\$49)을 방어하는 kg당 최저 보장가

10년

미국이 잃어버린 정제 기술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국가가 가격 하한선과 구매 보장으로 시장의 위험을 떠안자, JP모건과 애플 등 거대한 민간 자본이 다시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 투입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축적된 중국의 99% 정제 독점망을 단숨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풀어낸 텍스트 (13장)

© NotebookLM

14장 호르무즈와 중·러 연대

트럼프가 베이징을 떠나고 나흘 뒤, 같은 활주로에 다른 손님이 내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베이징은 거의 똑같은 환영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레드카펫, 같은 의장대. 다른 것은 마중 나온 사람의 격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활주로에서 국가부주석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외교부장이 맞았습니다. 한 단계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문은 미중 회담이 끝내 만들지 못한 것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공동성명입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상을 가장 높은 예우로 맞는 형식이 국빈 방문입니다. 활주로에 누가 나오느냐, 어떤 의장대가 서느냐, 만찬을 어디서 여느냐가 모두 신호입니다. 외교에서는 이 의례 하나하나가 말을 합니다. 베이징은 트럼프에게도 푸틴에게도 비슷한 무대를 깔았지만, 활주로에 세운 사람을 한 칸 달리해서 두 손님의 무게를 미세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같은 회담을 두고 두 개의 다른 발표문을 냈습니다. 발표문이란 회담이 끝난 뒤 각자 자기 국민과 세계에 내놓는 공식 결과 요약입니다. 보통 양쪽이 합의한 큰 줄기는 비슷하게 적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나라가 적은 내용이 서로 어긋났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와 이란을 적었고, 중국은 그 단어를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던 두 정상이 회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기록한 셈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 장의 문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40건이 넘는 합의가 거기 담겼습니다. 회담의 형식 하나가, 두 관계의 온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모스크바가 트럼프의 베이징행을 불안하게 보지 않았다는 점도 이 그림을 채워 줍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러시아의 등 뒤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깎는 거래를 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모스크바 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중 회담에서 우크라이나도, 군비 통제도, 러시아가 신경 쓰는 의제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엇갈린 두 발표문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마음을 놓고 베이징에 내렸습니다.

이 대비의 뿌리에 호르무즈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부터 짚겠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바다로 나가는 좁은 목입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퍼 올린 기름이 이 길목을 지나야 세계로 흘러갑니다. 길이 좁다 보니, 누군가 입구를 막으면 세계의 기름 흐름이 한꺼번에 출렁입니다. 그 무렵 이란을 둘러싼 전쟁으로 이 해협이 막혀 있었습니다. 기름을 실은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묵였습니다. 누가 이 빗장을 풀 수 있느냐가 회담 테이블 위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트럼프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시진핑에게 호르무즈 문제로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는 호의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호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부탁해서 얻는 양보를 뜻합니다. 트럼프는 그 부탁을 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산은 이랬습니다. 중국은 원유의 40퍼센트를 그 해협에서 얻고, 미국은 거기서 한 방울도 얻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국이 알아서 해협을 열고 싶어 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기름이 묶여 있는 쪽이 먼저 답답해질 테니까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가 막혀 있던 그 무렵, 해협의 빗장을 열 실질적인 손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이란의 가장 큰 석유 고객인 중국에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구매력이 열쇠였습니다.

미국은 그 사실을 회담의 성과로 적고 싶어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와 해협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통행료란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배에 돈을 물리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 부당한 징수에 중국도 반대했다고, 곧 미국과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의 외교적 승리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쪽의 시선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 통행료 거부는 미국 측 브리핑에서 나온 프레임입니다. 정작 중국의 발표문에는 호르무즈도, 이란도, 통행료도, 단어 하나 없었습니다. 중국은 그저 주요 국제·지역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고만 적었습니다.

이 침묵이 중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속으로 중국은 호르무즈가 열리기를 바랐습니다. 중국도 그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서에 적으면, 중국이 이란을 압박했다는 흔적이 남습니다. 글로벌 남방과 이란을 향해 쌓아온 신뢰가 금이 갑니다. 글로벌 남방이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중국은 그 나라들에게 자기가 서방과는 다른 동반자라는 이미지를 오래 공들여 쌓아 왔습니다. 이란을 등 떠밀었다는 기록 한 줄이 그 공든 탑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합의를 해주되, 그 합의를 공개하는 일만은 거부했습니다. 미국에 가시적인 승리를 한 조각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베이징은 지금 자기가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며 자리를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할수록, 중국은 제재망 바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재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돈줄과 거래를 끊어 굴복시키려는 경제적 무기입니다. 중국은 그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번 똑똑히 보았습니다. 2012년 이란이 국제 결제망에서 끊기는 것을 보았고,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서방에 동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제 결제망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 은행 송금이 오가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시에 쓰려고 쟁여 둔 달러 같은 외국 돈입니다. 이란은 그 통로에서 쫓겨났고, 러시아는 쟁여 둔 돈이 서방 손에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무기로 읽었습니다. 언젠가 자기에게도 같은 칼이 올 수 있다고 보고, 달러 바깥에 결제망을 따로 키웠습니다. CIPS라는 자체 결제망입니다. 미국이 쫓겨난 달러 송금 통로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 대금을 주고받게 해주는 길입니다. 러시아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그 망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는 나라들이 모일 곳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중국의 결제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칼을 들수록, 그 칼을 피하려는 나라들이 중국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완전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가장 원하는 것은 새 가스관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2호. 러시아 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가스관은 한번 깔면 수십 년 동안 두 나라를 한 줄로 묶는 인프라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유럽이 등을 돌린 뒤 가스를 팔 새 시장이 절실했고, 그 시장이 중국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그 전해 9월에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까지 맺었습니다. 합의의 큰 틀에 손을 맞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베이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격과 자금과 일정에서 이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더 싸게 사려 했고, 누가 건설비를 낼지도 맞지 않았습니다. 살 사람이 급할 게 없으면 값을 깎는 법입니다. 푸틴은 빈손으로 가스관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기존 송유관의 수송 능력은 하루 16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하루에 들여오는 원유는 1천만 배럴입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만으로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들어켜야 할 양의 일부에 그칩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와 아무리 가까워져도 결국 호르무즈가 열리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러시아 한쪽에만 기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중국은 어느 쪽에도 큰 패를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게는 회담의 성과를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푸틴에게는 가스관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침묵으로, 러시아에는 가격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례는 베풀되, 정작 원하는 것은 쥐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압박할수록 중국이

러시아로 기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울기에는 각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둘 다를 저울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베이징을 필요로 하고, 베이징은 누구에게도 전부를 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중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14장 호르무즈와 중·러 연대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완벽한 패를 쥐여주지 않으며 철저한 전략적 줄타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0%

중국 원유 수입 중 호르무즈 해협 통과 비율

1,000만

중국의 일일 원유 수입량 (단위: 배럴)

160만

러시아 송유관의 일일 최대 수송량 (단위: 배럴)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는 국가들을 독자 결제망(CIPS)으로 모으면서도, 중동 원유가 절실해 러시아 가스관 계약은 유보했습니다. 미국에는 침묵으로, 러시아에는 가격으로 선을 그으며 '모두가 베이징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국의 진짜 힘입니다.

출처: 붙여넣은 텍스트 (14장)

📌 NotebookLM

15장 달러를 다시 설계하다

2025년 7월 18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럼프가 법안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이름은 지니어스법.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법이라는 긴 제목의 줄임말입니다. 겉으로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국내 금융법처럼 보였습니다. 관세도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서명이, 미중이 칩과 희토류로 먹살을 잡는 동안 그 밑에서 돈 자체의 설계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말부터 풀어야겠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비트코인은 값이 하루에도 크게 출렁입니다. 아침에 산 코인이 저녁에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화폐로는 물건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출렁임을 없앤 코인입니다. 영어 스테이블이 안정이라는 뜻입니다. 1코인을 늘 1달러에 묶어 둡니다. 값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행한 코인 수만큼 진짜 달러 자산을 따로 쌓아 둡니다. 코인 한 개를 가져오면 언제든 1달러로 바꿔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뒷받침할 돈을 금고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러에 묶인 디지털 화폐입니다. 인터넷을 타고 국경을 넘지만, 가치는 달러에 못 박혀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그 쌓아 둔 자산을 좁게 못 박았습니다. 미국 현금,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그리고 만기가 짧은 미국 국채. 사실상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라는 말도 짚고 가겠습니다.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써 주는 차용증입니다. 미국 정부가 쓸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찍어 팔고, 그 국채를 산 사람이 정부에 돈을 꺾 주는 셈입니다. 만기가 짧은 국채는 곧 돌려받는 차용증이라 안전하고 현금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이 국채를 금고에 채워야 합니다. 더해서 발행자는 매달 보유량을 공시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최고경영자가 그 정확성에 서명해야 합니다. 거짓이면 형사처벌입니다. 발행자가 망해도 코인을 가진 사람이 다른 빚쟁이보다 먼저 금고에서 돈을 돌려받도록, 우선 변제권도 법에 박았습니다.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가 세계를 돌아다닐 법적 고속도로를 깔 것입니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두고 미국 감독기관들이 다투었는데, 이 법은 증권도 상품도 아니라고 못 박아 그 다툼까지 끊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달러를 전 세계 스마트폰 안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국 돈을 믿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물가가 한 해에 몇 배씩 뛰고, 통화 가치가 하룻밤에 주저앉는 곳입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이 지갑 앱에 달러 코인을 담으면, 그 순간 달러는 지폐 없이도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이 달러가 하던 일을 디지털 지갑이 대신합니다. 은행 계좌도, 미국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달러가 사람들의 손바닥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뒷받침할 미국 국채를 더 사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달러가 퍼질수록, 미국의 빚을 사 줄 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막대한 적자를 내고 그만큼 국채를 찍어 팝니다. 그 국채를 누가 사 줄 것인가는 미국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그 고민에 답을 하나 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달러를 쓰면 쓸수록, 그 달러를 받치느라 미국 국채를 사야 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전 세계의 지갑이 떠받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재무부가 앉았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돈줄을 쥐 부처입니다. 세금을 걷고, 국채를 찍고, 제재를 집행합니다. 법은 이 재무부에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규칙을 어긴 외국 발행자를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그 코인은 미국에서 거래가 막힙니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과징금이 쌓입니다. 외국 발행자라는 말은, 미국 바깥에서 달러 코인을 찍는 회사를 가리킵니다. 미국 땅에 있지 않아도, 달러에 연동된 코인을 미국에 팔면 재무부의 손이 닿습니다. 달러로 표기된 코인을 제재할 기존 권한도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제재라는 무기는 본래 어떤 나라나 사람을 달러 결제망에서 잘라 내는 것입니다. 달러를 못 쓰게 하면 국제 거래가 막힙니다. 그 무기를 블록체인 위에서도 그대로 휘두를 수 있게 길을 터 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여러 컴퓨터에 흩어 적어 두는 장부 기술인데, 누군가는 이 장부로 미국의 감시를 피해 가려 합니다. 재무부는 바로 그 길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디지털로 연장하면서, 그 디지털 위에 제재의 그물까지 함께 깐 셈입니다.

이 디지털 달러 굴기의 맞은편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러시아가 국제 결제망에서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결제망은 스위프트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통신망인데,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달러 질서의 신경망 노릇을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이 망에서 끊으면, 그 나라 은행은 바깥 세상과 거래를 주고받을 길이 막힙니다. 이란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중국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언젠가 자기 차례가 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달러 바깥에 자기 길을 냈습니다. 독자 결제망 시프스를 키우고,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고, 마흔 곳가량의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의 돈을 정해진 한도까지 빌려주기로 약속해 두는 안전판입니다.

위안화로 무역을 결제하는 나라도 늘렸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언젠가 자기에게 올 것을 알기에, 미리 우산을 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산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025년 5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숫자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자리한, 국제 경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연구기관입니다. 그해 3월 세계 결제에서 달러는 47퍼센트였습니다. 유로가 22퍼센트, 위안화는 4.7퍼센트로 4위였습니다. 세계가 주고받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달러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위안화는 스무 개 중 하나에도 못 미쳤습니다. 외환 거래의 88퍼센트에 달러가 한 축으로 끼었습니다. 두 나라 돈을 맞바꿀 때조차 일단 달러를 거쳐 가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안화 결제가 늘긴 했지만, 달러의 몫이 아니라 다른 통화들의 몫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달러의 파이는 그대로 두고, 작은 통화들끼리 자리를 바꾼 셈입니다. 중국의 시프스는 참가 은행 대부분이 정작 메시지는 여전히 서방의 망을 거쳐 주고받는 기형적인 구조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제는 시프스로 하면서도, 그 결제를 알리는 통신은 스위프트를 빌려 쓰는 것입니다. 길을 새로 냈다지만, 정작 표지판은 옛 길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하루 처리 건수는 서방 망의 천분의 일에도 못 미쳤습니다.

연구소의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유의미하지만, 체제를 흔들지는 못한다.

위안화는 제재를 맞은 우방을 돕는 방어 수단으로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물건값을 위안화로 치르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러 질서를 대체할 도전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효과라는 벽이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달러를 쓰기에 달러가 더 편해지고, 더 편하니 또 더 많은 사람이 달러를 쓰는 고리입니다. 전화기 한 대만 가진 사람보다 모두가 같은 전화를 가질 때 그 전화가 쓸모 있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달러는 이미 모두가 가진 전화기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달러의 자리를 과도한 특권이라 부릅니다. 남들이 다 쓰기에 미국만 누리는 편익입니다. 그 특권을 중국이 인위적으로 깨려 하면 오히려 자국 기업의 거래 비용만 치솟았습니다. 위안화를 억지로 밀면, 정작 위안화로 결제해야 하는 중국 회사들이 손해를 보는 역설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밀어붙일수록, 달러의 편리함이 도리어 또렷해지는 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그림은 다른 전선과 달랐습니다. 칩에서는 중국이 자립으로 버텼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막자 중국은 제 손으로 만드는 길을 갔고, 격차를 좁혀 갔습니다.

희토류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목을 잡았습니다. 전기차와 무기에 들어가는 그 광물의 가공을 중국이 거의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칩에서도 희토류에서도, 격차는 어느 쪽으로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돈에서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47퍼센트와 4.7퍼센트. 열배의 간격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지니어스법으로 한 층을 더 올렸습니다. 47퍼센트의 지배력을, 종이가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영속시키는 작업입니다. 모두가 관세와 광물을 보는 동안, 미국은 가장 조용히, 가장 깊은 곳에서, 달러의 배관을 다시 깔고 있었습니다.

15장 달러를 다시 설계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지니어스법)하여 전 세계 스마트폰을 통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 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47%

세계 결제 시장 내 달러 비중 (1위)

4.7%

세계 결제 시장 내 위안화 비중 (4위)

1달러

스마트폰 지갑 속 디지털 화폐에 고정된 절대 가치

중국이 달러 우회망을 만들려 시도하지만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에 가로막혔고, 통화 패권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화폐의 담보를 미국 국채로 강제함으로써, 막대한 재정 적자를 전 세계의 지갑이 떠받치는 영구적 구조를 짰습니다.

출처: 붙여넣은 텍스트 (15장)

© NotebookLM

제 5 부

대만과 바다, 건드리지 않은 뇌관

16장 베이징이 비켜간 의제

회담이 끝나고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외쳤습니다. 대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만을 지키겠습니까. 트럼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대만에 대해 나온 가장 큰 말이었습니다.

대만이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거운 단어였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미중 관계에는 여러 다툼의 지점이 있습니다. 관세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하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지점이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기 영토로 봅니다. 언젠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국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미국은 그 섬을 나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무기를 팔며 곁을 지켜왔습니다. 1979년 미국이 베이징과 수교하면서 타이베이와 공식 외교를 끊은 바로 그해, 미국 의회는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방어용 무기를 계속 판다는 약속을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은 대사관도 없이, 그러나 무기 거래로 이어진 묘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그 무기 거래를 자기 집 안마당에 남이 들어와 칼을 놓고 가는 일로 봅니다. 두 강대국이 한 섬을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화통신이 전 세계로 내보낸 중국 측 발표문에는 시진핑의 발언이 장문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문이라는 말을 풀어두겠습니다. 외교에서는 정상끼리 만난 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회담 내용을 정리해 내놓습니다. 이것을 통고문, 영어로는 리드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빼는지가 곧 그 나라의 속내입니다. 적으면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뜻이고, 빼면 덮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외교 문서에서 단어 하나를 적느냐 마느냐는 그래서 무게가 큼니다. 중국의 통고문, 그 맨 앞에 대만이 있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시진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잘못 다루면 두 나라는 충돌하고, 심지어 대항하게 될 것이다. 둥글게 에두르던 외교 화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탤했습니다.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 인민일보는 다음 날 1면에 그 문장을 박았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을 다시 그었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대만을 맨 앞에 세웠고, 다른 쪽은 174단어 어디에도 그 단어를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는 회담 직후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로서, 그리고 오늘 회담을 기준으로,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없다고. 변함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자리를 봐야 합니다. 그 말은 회담장 밖,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낸 문서, 백악관이 공식으로 배포한 통고문 안에는 그 말이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한 말은 미국 혼자 한 말입니다. 통고문에 적힌 말은 두 나라가 함께 인정한 말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시진핑이 가장 위험한 단어를 가장 크게 외칠 때, 백악관은 그 단어를 통고문에서 지웠습니다. 강한 주장에 반박하지 않는 것은 묵인에 가깝습니다. 1979년 수교 이래 보지 못한 후퇴라고, 한 분석은 적었습니다.

침묵에는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140억 달러어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기 판매 승인안이란, 대만에 어떤 무기를 얼마어치 팔지 정부가 결재하는 서류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거래가 굴러가고, 서명을 미루면 그 무기는 팔리지 못한 채 공중에 뜹니다. 트럼프는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140억 달러는 어디로도 가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는 이미 말한 바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안 팔기를 바랄 것이고, 나는 그 문제를 그와 의논하겠다고. 무기를 파는 일을 상대와 의논하겠다는 말. 이 한 문장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에 여섯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6항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만에 무기를 팔 때 미리 베이징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의 안전을 중국과 흥정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약속이, 트럼프의 한 문장에 흔들렸습니다. 의논하겠다는 말은 곧 흥정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트럼프에게 대만은 자유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니라 흥정의 칩이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보잉 200대와 콩 2,500만 톤과 낮은 물가였습니다. 유권자에게 보여줄 숫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진핑에게서 얻으려면, 시진핑이 가장 아끼는 패를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진핑이 가장 아끼는 패가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메뉴판에 올랐습니다. 흥정의 칩이 된 것입니다. 한 대만 관리는 회담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대만이 두 사람의 협상 메뉴에 오르는 것이라고. 자기 운명이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두 사람의 거래 품목이 되는 일.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이징이 노린 것은 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덮어두고 표면적 안정에 합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울과 도쿄와 타이베이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동맹보다 중국과의 안정을 먼저 챙긴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동맹 이간질이라고 합니다. 동맹국들 사이를 갈라놓는 수법입니다. 한국과 일본과 대만이 미국을 보며 같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나라가 중국과 잘 지내려고 우리를 슬그머니 내려놓는 건 아닐까. 한 번 그 의심이 들면 동맹의 결속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대만 안으로는 다른 속삭임을 흘려보냈습니다. 보라, 너희를 지켜준 다던 나라가 의지를 잃었다. 이것을 인지전이라고 부릅니다. 총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대만 사람들이 미국은 결국 우리를 버릴 거라고 믿게 되면, 스스로 저항할 마음을 접게 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대만의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 그것을 꿰뚫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약속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 스스로 보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 침묵은 한국에도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대만해협은 세계 무역의 5분의 1이 지나는 길목이고, 한국 무역의 4분의 1이 거기 걸려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좁은 바닷길 하나에 한국 경제의 큰 뭍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만 설명자료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빼던 그 손이, 한국의 안보 공약에는 닿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대만에 한 일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한 것을 한국에 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은 희망이지 분석이 아니다. 희망과 분석을 가르는 이 한마디가 묵직합니다.

그래서 이 회담의 가장 위험한 장면은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어를 한쪽이 외치고 다른 쪽이 지웠다는 것. 비켜간 것은 베이징이 아니라 워싱턴이었고, 비켜간 자리에 뇌관이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 뇌관 위로, 무기는 여전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16장 베이징이 비켜간 의제

미국은 정상회담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지우며 침묵의 대가로 표면적 안정을 흥정했습니다.

174 단어

미국 공식 통고문 내
'대만' 언급 횟수 0회

140억 달러

대통령 서명이 보류된
대만 무기 판매 승인안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전례 없는 외교적 후퇴

중국이 대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의제로 내세울 때, 미국은 동맹의 안보보다 선거용 실리를 위한 거래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침묵과 타협은 대만의 방어 의지를 꺾는 인지전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한국의 안보 공약에도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출처: 16장 베이징이 비켜간 의제

NotebookLM

17장 남중국해, 아홉 개의 선

2025년 8월 11일 아침, 스카버러 암초 부근 바다에서 중국 배 두 척이 필리핀 해경선 한 척을 양옆에서 몰아붙였습니다. 물대포가 필리핀 배 갑판을 때렸습니다. 중국 배들은 그 배를 들이받으려 뱃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필리핀 배가 오른쪽으로 급히 키를 꺾었습니다. 들이받으려던 중국 배 두 척이 서로 부딪쳤습니다. 그 충돌로 중국 해경 두 명이 숨졌습니다.

스카버러 암초가 어디인지 짚겠습니다. 필리핀 본섬에서 서쪽으로 220킬로미터쯤 떨어진 작은 산호초입니다. 필리핀 코앞이지만, 중국은 이곳을 자기 바다라고 주장합니다. 남중국해 이야기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 필리핀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둘러싼 바다입니다. 세계 무역의 3분의 1이 이 바다를 지나갑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와 가스도 이 길을 통과합니다.

중국은 이 바다 거의 전부에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1947년 지도에 처음 그은, 아홉 개의 토막 난 선입니다. 9단선이라 부릅니다. 이 선은 남중국해의 약 90퍼센트를 중국 것으로 표시합니다. 필리핀 코앞의 암초도, 베트남 앞바다도 그 선 안에 들어갑니다.

2016년, 국제 재판소가 그 선에 답을 내렸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9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국제 해양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나라 사이 분쟁을 가리는 국제 기구입니다. 판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종이였고, 바다에는 중국 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해권이라는 말을 짚겠습니다. 제해권은 어떤 바다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힘입니다. 땅을 점령하지 않아도, 그 바다를 지나는 배를 막거나 통과시킬 수 있으면 그 바다를 쥔 것입니다. 석유를 실은 배도, 반도체를 실은 배도, 곡물을 실은 배도 누군가의 허락 아래 지나가게 됩니다. 9단선은 영토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바닷길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뒷받침하는 것이 함대입니다. 중국 해군은 이제 함정 수로 세계 1위입니다. 전투함만 234척으로, 미국의 219척을 넘어섰습니다. 배를 짓는 능력의 차이는 더 큼니다. 한 미국 보고서는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을 취역시켰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하이난의 취역식에 섰습니다. 푸젠함은 전투기를 전자기 힘으로 쏘아 올리는 사출기를 갖췄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항모는 세계에서 미국의 최신 항모 다음으로 푸젠함이 둘째입니다.

중국은 이 함대로 바다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려 합니다. 도련선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 선 안쪽 바다로 미국 함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항모 킬러라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동평-21D와 동평-26은 1500킬로미터에서 4000킬로미터 밖의 군함을 때리는 미사일입니다. 미국 항모가 가까이 오기 전에 위협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울타리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자리가 결정적입니다. 대만은 그 첫 번째 선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울타리의 빗장이 풀리고 중국 함대는 태평양으로 곧장 나갑니다. 16장에서 본 대만 문제가 반도체만의 일이 아닌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대만은 칩의 섬이자, 바다의 빗장입니다. 베이징 회담에서 시진핑이 대만을 잘못 건드리지 말라고 못 박은 데에는, 이 바다의 섬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휴전이 이어지던 2026년에도 이 바다에서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4월,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에 어선과 함정, 그리고 떠다니는 장벽으로 바리케이드를 세웠습니다. 5월에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과 함께 그 부근을 순찰했습니다. 봄에 열린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훈련에는 지상에서 군함을 때리는 미사일까지 등장했습니다. 관세와 반도체의 휴전과는 따로, 바다의 대치는 날마다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이 바다는 한국과 멀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바다를 지나옵니다. 누군가 이 길을 쥐면, 한국 경제의 숨길 하나를 쥐는 것입니다. 종이 위의 아홉 개 선과, 물 위의 234척.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 바다를 매일 건너는 배들의 무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17장 남중국해, 아홉 개의 선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영토 분쟁을 넘어,
세계 무역 핵심 바닷길을 통제하려는 **군사적 제해권 선언**입니다.

90%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의 비율**

234척

미국을 넘어선 **세계 1위**
중국 해군의 전투함 수

1/3

이 바다를 통과하는
세계 무역 **물동량 비중**

중국은 막강한 건조 능력과 미사일을 바탕으로 대만을 빙장 삼아 미군 함대의 접근을 막는 도련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와 가스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만큼, 이 바다의 군사적 통제권은 한국 경제의 숨통을 죄는 직접적 위협입니다.

출처: 붙여넣은 텍스트 (17장)
NotebookLM

18장 무기는 계속 팔린다

회담장에서 대만이라는 단어는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대만으로 향하는 화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다는 말의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과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넘기려면, 행정부가 먼저 판매안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그다음 의회에 알립니다. 이 통보가 핵심입니다. 의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판매를 막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판매 한 건 한 건은 외교 행위이자 정치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판다고 의회에 알리는 그 시점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미국이 대만 편에 서 있다는 신호이고, 베이징을 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110억 달러어치 무기를 팔기로 승인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입니다. 하이마스 로켓과 드론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이마스는 트럭에 실어 쏘는 포병 로켓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끊는 데 쓰여 이름값을 했습니다. 큰 군함이나 비싼 전투기 대신, 작고 값싸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무기로 대만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고슴도치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그것을 힘을 통한 평화의 증거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큰 숫자 뒤에는 더 큰 숫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팔기로 해놓고 아직 보내지 못한 무기, 그 밀린 물량만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승인은 거대했지만, 인도는 느렸습니다.

이 밀린 물량을 백로그라고 부릅니다. 식당으로 치면, 주문은 받아놓고 아직 음식을 못 내준 상태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거래가 끝났는데, 실제 무기는 대만 땅에 도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200억 달러어치가 그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 공장이 이 물량을 한꺼번에 만들어 낼 힘이 없었던 탓이 큼니다. 약속한 종기와 도착한 무기 사이의 이 거대한 틈이, 대만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기를 사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분노로 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명단으로 답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신뢰불가실체 명단을 가동했습니다. 이름이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나 주권을 해친다고 본 외국 기업을 골라 올리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입니다. 한 번 이 명단에 오르면, 그 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이 막히고, 중국 안에 투자할 수 없고, 직원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의 문이 통째로 닫히는

셈입니다. 미국의 드론 회사 스카이드ิโอ가 거기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전투기를 만드는 쉴드 AI도, 보잉이 소유한 인시투도, 브링크도 올랐습니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중국에서 부품을 살 수도, 사업을 할 수도, 투자를 할 수도, 직원을 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사유는 한 줄이었습니다. 대만과의 군사기술 협력. 미국 무기를 대만에 댄 죄로, 그 회사들의 중국 쪽 길이 모두 막힌 것입니다.

이 보복이 매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드론을 만들려면 배터리와 부품이 필요한데, 그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스카이드ิโอ는 곧 배터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부품의 상당수를 중국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을 막을 무기를 만드는 미국 회사가, 그 무기를 조립할 부품을 정작 적국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것입니다. 중국은 그 약한 고리를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명단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 라인을 멈추는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명단은 기업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26일, 중국 외교부가 한 걸음 더 갔습니다. 미국 군수기업 스무 곳과 임원 열 명의 중국 내 재산을 전면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고, 입국을 막았습니다. 회사를 누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그 임원 명단에 안두릴의 창업자 팔머 럭키가 있었습니다. 레드캣과 킬 드론과 롬버스 파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에, 베이징이 빗장을 채운 것입니다. 이들은 자산만 묶인 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한, 그 무기를 만드는 손에 값을 매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회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회담장 위층에서는 안정과 협력의 말이 오갔습니다. 보잉을 사고, 콩을 사고, 관계를 안정시키자는 말입니다. 회담장 아래층에서는 110억 달러어치 살상 무기와 수십 개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이 동시에 오갔습니다. 위에서는 악수를, 아래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같은 두 나라가, 같은 시기에, 평화의 언어와 전쟁의 기계를 함께 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보복을 자국 법에 근거한 정당한 주권 수호라고 했고, 미국 의원들은 같은 무기 판매를 대만을 지키는 역사적 거래라고 했습니다. 하이마스 한 대를 두고 한쪽은 방어를 돕는 일이라 부르고, 다른 쪽은 주권을 해치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정반대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더 묘한 것은 트럼프가 그 무기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대만 무기 판매를 의회에 수시로, 건건이 통보했습니다. 안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한동안 묶어두었다가, 어느 날 하나의 거대한 묶음으로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12월의 110억 달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회에 매번 알리던 절차를 멈추고, 여러 건을 모아 단 하나의 패키지로 통보한 것입니다. 무기 판매가 안보의 일상이 아니라, 협상의 카드가 된 것입니다. 시진핑과의 분위기가 필요할 때는 깔고 앉아 있다가, 필요가 바뀌면 한 번에 밀어냈습니다. 무기가 흥정의 리듬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부산의 휴전이 무르익자 중국은 명단의 일부를 풀어주었고, 무기 판매가 다시 고개를 들면 명단도 다시 두꺼워졌습니다. 묶었다 풀었다 하는 이 리듬 속에서, 대만의 안전은 두 나라의 흥정에 끌려다녔습니다.

이것이 대만이라는 뇌관의 본질이었습니다. 회담장의 말로는 봉합되고, 회담장 밖의 거래로는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지키겠다는 말을 통고문에서 지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기는 계속 팔았습니다. 중국은 안정을 말하면서도,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재산을 얼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입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고 손으로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대만해협의 평화가 위태로운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갈라진 자리에, 뇌관이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뇌관 위로, 다음 무기 묶음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40억 달러어치였습니다. 트럼프는 그 서류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까지는, 서명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 18장 무기는 계속 팔린다 ■■■

평화의 언어 뒤에서 **대만행 무기 거래**는 멈추지 않으며,
안보는 미중의 **흥정 카드**가 되었습니다.

\$11B

(트럼프 행정부 대만 무기 승인 규모)

\$20B

(생산 지연으로 묶인 무기 백로그 물량)

미국은 대만 방어 명분을, 중국은 기업 자산 동결과 블랙리스트를 무기로 서로 주고받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안전은 두 강대국의 협상 리듬에 따라 요동치는 위태로운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제 6 부

한국, 새우등과 패 사이

19장 76% 급락이 말한 것

경기도의 작은 가공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원자재 하나로 공장이 멈출 수 있다고. 그 한 가지가 안 들어오면 가공도 조립도 못 하고, 납품이 밀립니다. 그러면 1차 협력사도, 2차 협력사도 함께 멈춥니다. 못 하나가 없어 편자를 못 박고, 편자가 없어 말이 못 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철이나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희토류라고 부르는 광물입니다. 이름에 흠 토 자가 들어가지만 흔한 흠이 아닙니다. 전기차의 모터, 풍력발전기, 반도체 장비, 정밀 자석 속에 아주 적은 양으로 숨어 들어가는 금속들입니다.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양은 손톱만큼입니다. 그런데 그 손톱만큼이 끊기면 차도, 칩도, 자석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양이 적다는 것과 없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5년 4월, 그 못이 끊겼습니다.

중국이 일급 가지 중희토류에 수출 허가제를 걸었습니다. 허가제란, 팔고 싶어도 정부의 도장을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디스프로슘, 터븀처럼 발음조차 낯선 원소 일급 종을 중국 상무부가 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원소 그대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간 영구자석이며 합금까지 잘게 쪼개어 그물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오던 희토류 자석 수입이 76퍼센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으로 간 물량은 59퍼센트 줄었습니다. 한국이 더 크게 맞았습니다. 자석에 들어가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의 값은 한 달 새 세 배로 뛰었습니다. 종이 한 장짜리 공고가, 바다 건너 공장의 전원 스위치를 내린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는 일이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포드 자동차 공장은 부품 부족으로 익스플로러 생산 라인을 일주일간 통째로 세웠습니다. 포드의 최고경영자는 희토류 공급 상황이 하루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원이 무기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군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부품이 도착하지 않고, 라인이 멈추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76이라는 숫자가 말한 것은 자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희토류 금속의 약 80퍼센트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범위를 희토류 금속 전체로 넓히면 그 의존도는 91.2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품목을 좁혀 보면 더 깊습니다. 제조업의

소금이라 불리는 마그네슘은 99.8퍼센트가 중국산입니다. 마그네슘은 강도는 올리고 무게는 줄여 주는 금속이라, 자동차 차체와 시트 프레임, 항공기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거의 전부를 중국 한 나라에서 가져옵니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의 원료인 산화텅스텐은 92.9퍼센트, 전기차 배터리의 수산화리튬은 83.5퍼센트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세어 보니, 단일 국가에 8할 이상 기댄 수입 품목이 3,941개였고, 그 절반 가까이가 중국 소재였습니다.

이 숫자들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99.8퍼센트라는 말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값을 깎아 달라고 할 수도, 다른 데서 사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파는 쪽이 가격을 부르고, 사는 쪽은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한쪽으로 쏠린 의존이 만드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의존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의 원료나 정밀 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그것이 아니면 공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체재가 없습니다. 비싸면 싼 걸 쓰고, 막히면 다른 걸 쓰는 보통의 시장 논리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산화텅스텐을 다른 물질로 바꾸면 반도체가 안 나옵니다. 디스프로슘을 빼면 모터의 자석이 제 힘을 못 냅니다.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과 바꿀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가 겹치면, 그 광물은 곧바로 목줄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실제로 막기 전에, 막을 수 있다는 분위기만으로도 값이 요동쳤습니다. 마그네슘은 2020년 11월 1톤에 2,185달러였다가 1년 만에 약 2.5배로 뛰었습니다. 막힌 적도 없는데, 막힐지 모른다는 소문만으로 값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더 차가운 사실은 값을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보복하면 철광석으로 되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철소가 호주 철광석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리면 같이 아픈 자리가 있으면, 함부로 때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협상력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패가 없습니다. 핵심 광물의 9할을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 중국의 통제 앞에서 맞받을 무기도, 대신 살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의존도가 높다는 말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을 카드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마비를 한국은 이미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입니다. 요소수는 경유차가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액체인데, 그 원료인 요소를 한국은 공업용으로 97.7퍼센트나 중국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 절차 하나를

바꾸자, 중국 항구에서부터 물건이 묶였습니다. 그러자 경유 화물차 200만 대가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까지 흔들렸습니다. 작은 화학물질 하나가 한 나라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때의 교훈이 4년 뒤 희토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화물차가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양쪽에서 동시에 눌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만든 메모리의 출구를 막았습니다. 중국에 팔지 못하게, 미국에 공장을 짓게 했습니다. 중국은 그 메모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의 입구를 죄었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은 공고 제61호라는 새 규칙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밖에서 만든 물건이라도 그 안에 중국산 희토류가 섞여 있고, 그 값이 전체의 0.1퍼센트만 넘으면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남의 나라 공장에서 만든 물건에까지 자기 도장을 요구하는, 국경을 넘는 통제입니다. 이 0.1퍼센트라는 미량의 문턱이 한국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삼성과 SK가 중국산 광물을 조금이라도 써서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 곧 인공지능 칩에 쌓아 올리는 그 HBM이 미국 국방망으로 가는 순간, 중국은 한국에 광물을 끊을 법적 권한을 칩니다. 출구는 미국이, 입구는 중국이 쥐었습니다. 세계 HBM의 9할을 만드는 나라가, 그 칩의 재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미국에 칩을 팔려다 중국의 자원 보복을 맞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자리였습니다.

부산의 휴전이 잠깐 우산을 펴 주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부산에서 마주 앉은 두 나라는 1년짜리 시한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장 계열사를 통한 우회 수입을 막는 50퍼센트 룰의 시행을 1년 미뤘고, 그 대가로 중국은 공고 제61호의 글로벌 시행을 1년 멈추기로 했습니다. 50퍼센트 룰이 멈추고 희토류 통제가 멈추면서, 한국의 공장도 한 박자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우산은 한국이 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양보한 것이고, 중국이 미국에 내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두 거인이 주고받은 거래가 만든 1년을 빌려 쓰는 처지였습니다. 우산을 펴고 접는 손은 끝까지 한국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1년이 끝나는 2026년 11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정제 시설을 확보하거나 한미일이 함께 비축망을 만들어 두지 못한다면, 한국의 라인은 다시 베이징의 도장 하나 앞으로 고스란히 끌려가게 됩니다.

76퍼센트는 그 모든 것을 한 숫자로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깊이 기대고 있는지, 얼마나 바꿀 수 없는지, 얼마나 되받을 수 없는지. 그 숫자는 자석의 통계가 아니라,

협상력의 성적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 옆에, 다른 청구서가 한 장 더 놓여 있었습니다. 25퍼센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19장 76% 급락이 말한 것 ■■■

중국발 희토류 통제가 부른 수입 급락은 한국 산업이 직면한 뼈아픈 **협상력의 부재**를 증명합니다.

76%

(중국 통제 직후 한국형 희토류 자석 수입 감소율)

99.8%

(한국의 중국산 마그네슘 수입 의존도)

0.1%

(중국 희토류 역외 통제망 발동 미량 기준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광물의 압도적 대중 의존도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언제든지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경제적 목줄입니다. 미국이 완제품 출구를 쥐고 중국이 소재 입구를 죄는 거미줄 속에서, 한국은 갇아줄 카드조차 없는 샌드위치 처지입니다.

출처: 물어남은 텍스트 말해

NotbookLM

20장 25% 명단에 오른 나라

2025년 4월 2일, 트럼프가 차트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나라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옆에는 25였습니다.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세율이었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이 낸 공식 문서에는 그 숫자가 26으로 적혔다가 다시 25로 고쳐졌습니다. 청구서가 급히 작성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쓴 숫자 하나에, 한국의 566억 달러어치 수출이 걸렸습니다.

상호관세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갑니다. 그날 트럼프가 든 근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EEPA라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본래 나라에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외국과의 거래를 막거나 자산을 묶을 수 있게 한 안보용 법입니다. 반세기 동안 관세에는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매년 보는 거대한 무역적자 자체를 비상사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무역적자는 미국이 외국에서 사 오는 물건값이 외국에 파는 물건값보다 많은 차액을 말합니다. 2024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 적자를 핑계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퍼센트 보편관세를 깔고, 그 위에 미국에 흑자를 내는 나라들을 골라 11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다른 세율을 엮었습니다. 한국은 그 위층 명단에 올랐습니다.

25라는 숫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간단한 산식을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본 적자를, 한국에서 들여온 수입액으로 나눕니다. 그 비율의 절반을 관세로 매깁니다. 2024년 미국의 대한국 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은 1,315억 달러였습니다. 나누면 50퍼센트, 그 절반이 25퍼센트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판다는 사실 하나가, 그대로 관세율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왜 하필 절반이었을까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를 매기면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가정값을 넣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 그만큼 빠진다는 탄력성을 4로,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얹히는 비율을 0.25로 잡았습니다. 두 숫자를 곱하면 1이 되어, 무역장벽으로 본 비율의 딱 절반만 관세로 매기는 모양이 나옵니다. 경제학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거칠었습니다. 한 나라가 미국에 얼마나 흑자를 내느냐, 그 하나만으로 세율이 정해졌습니다. 관세 장벽이 실제로 높은지 낮은지, 비관세 규제가 어떤지는 따지지 않았습다. 흑자가 곧 죄였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다섯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불러 나갔습니다. 영국, 인도,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이 가혹한 조치는 발효를 코앞에 두고 중국만 빼고 90일간 미뤄졌습니다. 그동안은 10퍼센트 보편관세만 임시로 걸어 두고, 미국이 75개국을 따로 불러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협상의 첫 줄에 섰습니다. 7월 7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한국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25퍼센트를 매기겠으니 8월 1일까지 협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관세율이 편지 한 장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25를 깎으려고 거대한 청구서에 서명했습니다.

11월,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매기려던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내렸습니다.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에, 2,000억 달러는 전략 분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1,0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대외 약속이었습니다. 10퍼센트포인트를 깎는 데, 그만큼 돈을 걸어야 했습니다. 협상 초반 한국이 내민 패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 작은 숫자가 협상 끝에 3,500억으로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깎아준 폭은 10퍼센트포인트, 치러야 할 값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도 압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무장관 러트닉은 3,50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현금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약속했다며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트럼프는 그 돈을 선불로 달라고 했습니다. 깎아준 만큼, 더 큰 청구서가 뒤따라왔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다그친 데는 셈이 있었습니다. 이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공장과 일자리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급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돈을 빨리 끌어와야 그 성과가 손에 잡혔습니다. 한국 국회의 투자 특별법 입법이 늦다는 것을 빌미로, 25퍼센트 관세를 다시 들어 올리겠다는 으름장이 협상장에 깔렸습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에서 설비와 부품을 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고, 미국의 적자가 커지고, 그 적자가 다시 더 높은 관세율로 돌아옵니다. 관세를 피하려는 투자가, 관세를 키우는 빌미가 되는 고리입니다. 이 고리에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자유발형 무역적자입니다. 미국에 들어선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그 공장을 짓고 돌리는 데 필요한

기계와 부품의 절반 넘게를 여전히 한국에서 가져다 씁니다. 투자를 강요받을수록 한국에서 미국으로 실려 가는 설비가 늘고, 그만큼 미국의 적자가 부풀고, 그 부분 적자가 다시 한국의 관세율로 청구되었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이 함정을 논리로 풀려 했습니다. 공장을 짓느라 일시적으로 실어 간 설비는 관세 계산에서 빼 달라, 자동차와 배터리가 현지 생산으로 완전히 바뀌면 대미 수출이 줄어 관세율은 절로 내려간다고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그 공장이 미국에서 돌기 시작하면, 그만큼의 일자리와 생산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관세를 피한 자리에 산업 공동화가 들어섰습니다.

세 주력 산업이 받는 때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세계 맞았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46퍼센트를 넘고, 대미 흑자의 7할을 혼자 법니다. 그 산업에는 상호관세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다른 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232조는 어떤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오래된 법입니다. 미국은 이 232조를 들어 완성차에 25퍼센트, 한 달 뒤 자동차 부품에까지 25퍼센트를 떨어뜨렸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미국 공장을 연 70만 대에서 120만 대 규모로 급히 늘려야 했습니다. 함께 미국으로 따라 들어간 부품업체들도 수요 절벽과 단가 인하 압력에 이중으로 시달렸습니다. 배터리는 더 깊이 베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퍼센트가 전면 적용되면 배터리 수출이 22퍼센트 넘게 줄 거라고 보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생산 능력의 대부분을 해외에, 그중에서도 미국에 걸어 두고 막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까지 거두려 하면서, 한국 배터리가 미국에 건 사활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반도체만 결이 달랐습니다. 반도체는 1차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메모리를 대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D램의 7할, 고대역폭 메모리의 9할을 세계에 공급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은 인공지능 칩 옆에 층층이 쌓아 데이터를 빠르게 퍼 나르는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병목을 푸는 핵심 부품이라, 미국이 관세를 매겨도 그 값은 결국 사는 쪽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는 직접 타격을 비켜갔습니다. 오히려 미중이 서로에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틈에서 한국 반도체는 대체 수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운에도 시한이 박혀 있었습니다. 행정명령의 부속서에 반도체가 전략 품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232조를 반도체에 들이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232조 관세를, 철강이 든 파생 상품으로 슬금슬금 넓혀 간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비켜간 칼이, 내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그 관세의 뿌리를 잘랐습니다. IEEPA로 매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관세를 매길 권한은 헌법이 의회에 맡긴 것인데, 비상사태법을 끌어다 그 권한을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 수출업계에 잠깐 빛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진흙탕 같은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그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거라고 반대의견에 적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담은 것은 상자 하나였을 뿐, 트럼프는 다른 상자를 골라 같은 25퍼센트를 다시 씌울 수 있었습니다. 232조, 122조, 301조. 232조는 안보, 122조는 무역적자,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명분으로 삼는 법입니다. 의회가 이미 위임해 둔 권한이라, 약간의 절차만 밟으면 거의 같은 세율이 이름만 바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상자 하나 뒤에, 열 수 있는 상자가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명단에서 받은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25퍼센트는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고 15퍼센트로 고쳐 적었지만, 그 숫자도 연필이었습니다. 지우개를 쥐 손은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한국은 세 장의 패를 들고 가늠해야 했습니다.

■■■ 20장 25% 명단에 오른 나라 ■■■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폭탄은 천문학적 대미 투자로 이어지며 **산업 공동화의 딜레마**를 낳았습니다.

25%

(미국 무역적자를 근거로 최초 통보된 상호관세율)



\$350B

(관세 인하를 위해 약속한 한국의 역대급 대미 투자액)



15%

(천문학적 투자 약속의 대가로 깎아낸 최종 관세율)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한 미국의 무차별적 관세 압박에 자동차와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세를 피하려 미국에 공장을 지을수록 한국산 설비 수출이 늘어 다시 미국의 적자를 키우고 관세를 부르는 역설적 굴레에 빠졌습니다.

21장 갈림길의 세 패 - HBM·핵심광물·통상

한국은 세 장의 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했고, 하나는 급소였고, 하나는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강한 패를 지키려면 급소를 내줘야 했고, 급소를 막으려면 청구서를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세 패가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패라는 말을 카드놀이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좋은 패 한 장이 있어도, 다른 두 장이 나쁘면 그 좋은 패를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한국이 꼭 그랬습니다. 가장 강한 패를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두 거인이 나머지 두 패의 약점을 동시에 찔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카드 세 장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이 어디서 강하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그 강점과 약점이 어떻게 한 몸에 겹쳤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 패는 HBM이었습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의 줄임말입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는 칩 곁에 바짝 붙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실어 나르는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가속기의 혈관에 해당합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두뇌 칩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인공지능 칩값에서 이 메모리가 차지하는 몫이 큼니다. 그 혈관을, 삼성과 SK가 9할을 만듭니다. 두 거인이 모두 탐내는 패였습니다.

그런데 강한 패일수록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HBM을 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함께 꺼낸 무기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입니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 FDPR이라 부릅니다. 이 규칙의 논리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미국 장비로 만든 물건이면, 남의 나라 땅에서 만들어 수출해도 미국 허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국 공장에서 한국이 만든 메모리인데도, 미국 장비를 거쳤다는 이유로 미국의 손이 그 출구에 닿습니다.

더 아픈 대목은 면제 명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과 비슷한 통제 체계를 갖춘 33개국에는 이 규칙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 일본, 호주, 영국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HBM 생산국 한국은 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대만, 싱가포르도 같이 빠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그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을 한미일 3자 반도체 통제 협정에 끌어들이려는 압박이었다는 것입니다. 면제를 미끼로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려 한 셈입니다.

위가 막히는 동안 아래도 눌렀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단일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 물길이 위협받았습니다. 그 틈을 화웨이가 파고들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산 HBM을 미리 대거 사재기하며 차세대 가속기 생산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범용 메모리를 저가로 쏟아냈습니다. 첨단은 미국이 막고, 범용은 중국이 밀었습니다. 9할을 쥐 손이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강한 패가 강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역설입니다.

두 번째 패는 핵심광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패가 아니라 급소였습니다.

핵심광물은 첨단 산업의 핏줄에 해당하는 원료들입니다. 반도체를 깎고,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 모터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한국은 이 핏줄을 거의 전부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마그네슘은 99.8퍼센트, 산화텅스텐은 92.9퍼센트, 희토류 금속은 91.2퍼센트가 중국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수산화리튬도 83.5퍼센트가 중국에서 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베이징이 수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한국의 첨단 공장이 줄줄이 멈춰 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국의 0.1퍼센트 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중국 상무부가 공고 제61호를 기습 발동했습니다. 중국 밖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중국산으로 지정된 희토류가 그 값의 0.1퍼센트만 섞여 있으면 베이징의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입니다. 한국이 만든 메모리에 중국산 광물이 미량 섞이고 그것이 미국 국방망으로 가면, 중국은 광물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터에 디스프로슘이 들어가는데, 그 차가 미국 방산 쪽으로 흘러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출구를 쥐고, 중국이 입구를 쥐었습니다. 미국의 HBM 통제가 한국 메모리의 출구를 죄었다면, 중국의 0.1퍼센트 룰은 그 메모리를 만드는 광물의 입구를 죄었습니다. 거울처럼 마주 보는 덫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급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관리 대상 핵심광물을 7종에서 희토류 17종 전체로 넓혔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용자를 늘리고, 지원 비율을 절반에서 7할로 올리고, 실패해도 용자의 9할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2,500억 원짜리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비축을 100일분으로 늘리고, 폐모터와 폐배터리에서 희토류를 다시 뽑는 재활용 기술도 키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 대책이 어디에 닿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비축은 공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갑자기 입구가 막혀도 한동안 버틸 식량을 미리 쌓아 두는 셈입니다. 조달청은 전국 비축기지에 인듐, 주석, 알루미늄, 구리 같은 원자재를 쌓아 방어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재활용은 공간을 안에서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폐하드디스크와 폐모터에서 희토류 자석을 건식 공정으로 뽑아내는 기술을 키웠습니다. 군산의 폐배터리 공장은 다 쓴 전기차 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갈라내 금속을 거둬들입니다. 사슬의 한쪽 끝을 국내로 끌어와 숨통을 조금 틔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축은 국경 안의 일입니다. 재활용도 국경 안의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0.1퍼센트 규정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단계에서, 국경 밖에서 작동합니다. 공간을 아무리 채워도 막을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원자재를 쌓고 재활용 기술을 키워도, 세계의 기초 소재에 중국산 희토류가 깔려 있는 한, 완제품을 내보내는 마지막 길목에서 베이징의 허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비축은 입구를 늘리는 일이고, 0.1퍼센트는 출구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막는 자리가 서로 달랐습니다. 공간이 가득 차 있어도 대문 밖에 중국이 서 있으면, 짐을 실은 트럭은 그 앞에서 멈춥니다.

더 차가운 한계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조차 광산에서 자석까지 잇는 데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국 희토류 업체 MP머티리얼즈에 수십억 달러를 부어 광산에서 자석까지의 사슬을 억지로 다시 짜는 데도 그만한 세월이 든다고 평가됩니다. 국가가 돈을 부어도 그렇습니다. 광물을 캐고, 갈라내고, 정제하고, 자석으로 빛는 단계는 한 해 예산으로 건너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1년 안에 80퍼센트 의존을 뜯어고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손을 잡을 상대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때 중국에 희토류를 막히자 호주와 손잡아 공급원을 바꿨습니다. 거대한 자원 부국이 곁에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맞손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중국에 되받을 자원도 없고, 호주처럼 즉시 공급원을 갈아탈 거대 자원국과의 연대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보복하면 맞보복할 지렛대가 없는, 사실상 협상력이 비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패는 통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25퍼센트의 상호관세를 매겼습니다. 상호관세란 상대가 우리 물건에 매기는 만큼 우리도 매기겠다는 명분의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동원해 이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영어 머리글자를 따 IEEPA라 부르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대통령이 무역과 거래를 폭넓게 틀어질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해 관세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배터리 같은 주력 수출품이 출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그것을 15퍼센트로 깎았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려 관세를 누그러뜨리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에는 역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 한국에서 설비를 실어 가면, 대미 수출이 늘고, 적자가 커지고, 관세율이 다시 오릅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무역적자이기 때문에, 적자를 키우는 투자가 관세를 부르는 고리가 됩니다. 관세를 피하려는 투자가 관세를 부르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공장이 도는 만큼 한국의 일자리가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강한 통상 카드가, 동시에 산업 공동화의 입구였습니다.

세 패를 한자리에 놓고 보면 한국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강한 패도 혼자서는 이기지 못하고, 급소는 막을 길이 멀고, 청구서는 연필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만 터지는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두 거인이 절실히 원하는 기술을 쥔 손이면서, 동시에 그 거인들의 통제에 가장 약한 몸이었습니다. 패를 쥔 손과 터지는 등을, 한 몸에 겹쳐 들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휴전이 1년을 벌어주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미중 두 나라가 벼랑 끝 전술을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은 제재 명단 기업의 지분 절반 이상 자회사까지 묶는 50퍼센트 자회사 규칙의 시행을 1년 미뤘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공고 61호 같은 희토류 역외 통제의 세계 시행을 1년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한국은 HBM 판로의 압박과 광물 단절의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 라인을 돌릴 숨통을 얻었습니다. 빌려온 우산이었습니다. 다만 그 우산을 펴고 접는 손은 베이징과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손에는 그 손이 없었습니다.

베이징 회담에서도 이 우산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14일과 15일의 2차 회담에서 관세 휴전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그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빌려준 1년은 부산에서 시작된 그대로, 더도 덜도 아닌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정제 시설을 세우는 일입니다. 베트남은 매장량이 크고, 인도네시아는 니켈 가공의 거점입니다. 그곳에 한국의 완충지대를 넓혀, 중국 한 나라에 묶인 사슬을 여러 갈래로 풀어야 했습니다. 그 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광물을 비축하고 정보를 나누는 공동망을 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처 하나의 차원을 넘어, 미중의 압박에 한 몸으로 대응할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했습니다.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엮는 일입니다. 손을 떼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사슬을 다시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1년 안에 얼마나 해냈는지, 성적표는 아직 적히지 않았습니다. CSIS의 말처럼, 자립은 발표나 투자액이 아니라 광산 밖으로 꺼낸 실제 톤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트럭에 실린 광물의 무게가 답입니다.

그 1년의 모래시계가 2026년 11월 10일을 향해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의 50퍼센트 룰과 중국의 0.1퍼센트 규정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한국은 세 패를 쥔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질문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1년 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어야 했나. 그리고, 무엇을 했나.

■■■ 21장 갈림길의 세 패 ■■■

HBM, 핵심광물, 통상이라는 세 장의 패가 미중의 압박에 묶인 채, 시한부 휴전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장

(강점과 급소가 한 몸에 겹친 한국의 3대 핵심 패)

90%

(한국이 장악했으나 통제의 표적이 된 HBM 시장 점유율)

1년

(미중 부산 회담이 벌어진 공급망 재편의 시한부 골든타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조차 강대국의 수출 통제(FDPR)와 광물 무기화 앞에서는 치명적인 급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인도네시아로의 공급망 다변화와 한미일 비축망 등 범정부적 대응으로 사슬을 다시 엮어낼 시간이 단 1년 남았습니다.

출처: 불어넣은 텍스트 발행

NotebookLM

에필로그 다시, 11월 10일, 그리고 9월 24일

5월 14일 저녁, 인민대회당 만찬장에서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9월 24일 시진핑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박아 공개로 던진 초청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역이 그렇듯 이 방문도 상호 호혜적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찬장에서 날짜를 못 박는다는 것은 보기보다 큰 일입니다. 국가 정상외 방문은 보통 외교 실무진이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조율한 뒤에야 발표됩니다. 트럼프는 그 절차를 건너뛰고, 상들리에 아래에서, 손님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날짜를 먼저 꺼냈습니다. 회담을 마치며 던진 즉흥적 한마디가 아니라, 다음 만남의 무대를 미리 깔아 둔 한 수였습니다.

이들간의 회담에서 두 거인은 공동성명 한 장 내지 못했습니다. 관세 휴전을 연장하지도 못했습니다. 희토류도, 반도체도, 대만도 그대로 두고 헤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두 나라가 합의한 내용을 한 문서에 담아 함께 발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서로 다른 발표문을 따로 내놓았습니다. 미국 쪽은 희토류와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강조했는데, 중국 쪽 발표문에는 그 대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중국은 '건설적 전략 안정'이라는 새 표현과 대만 문제를 앞세웠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회담을 하고 나온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의 회담이 만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약속이었습니다. 이 회담의 가장 중요한 산물은 합의문이 아니라, 다음 회담을 예약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무역과 투자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자는 원칙, 9월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 그것이 이틀짜리 정상회담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달력에 두 날짜가 박혔습니다. 9월 24일과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이 왜 무거운 날인지 알려면 그 1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1차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때 두 나라는 거대한 세계 경제 위기의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같은 제재 기업이 위장 자회사를 통해 통제를 빠져나가는 길을 막는 '50퍼센트 룰', 그리고 중국 해운과 조선업을 겨누는 입항 수수료 조치의 시행을 11월 10일부터 1년간 미뤘습니다. 엔티티 리스트란 미국이 거래를 막아 둔 제재 기업 명단입니다. 50퍼센트 룰은 그 명단에 오른 기업이 절반 넘는 지분을 진 자회사까지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본다는 규칙입니다. 이름만 바꿔 단 위장 회사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게

그물코를 촘촘히 한 셈입니다. 중국은 그 맞교환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붙이려던 희토류 역외 수출허가제를 1년간 멈췄습니다. 희토류는 자석과 전기차, 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고, 중국이 그 정제 시장을 거의 틀어쥐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급소를 겨누는 칼을 1년만 칼집에 넣어 두기로 한 것입니다.

11월 10일은 부산에서 묶은 매듭이 풀리는 날입니다. 그날 다섯 개의 시계가 같은 시각에 울립니다. 미국의 50퍼센트 룰이 깨어나고, 중국의 0.1퍼센트 그물이 펼쳐지고, 유예된 관세와 항만 수수료가 되살아납니다. 0.1퍼센트 그물이란 중국의 공고 61호를 가리킵니다. 한국산 반도체 완제품에 중국산 희토류가 0.1퍼센트만 섞여 있어도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손톱만큼만 들어가도 중국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물건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 한 달 반 전, 9월 24일에 시진핑이 워싱턴에 옵니다. 시한이 터지기 직전에 잡힌 마지막 담판입니다. 두 날짜는 한 줄에 꿰여 있었습니다. 9월에 매듭을 다시 묶지 못하면, 11월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같은 시계를 두 사람은 다르게 읽었습니다.

트럼프의 시계는 6개월짜리였습니다.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했고, 그 전에 시진핑을 백악관 레드카펫에 세워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중간선거는 임기 절반에 받는 성적표 같은 것입니다. 그 전에 중국을 굴복시켰다는 그림 한 장이 유권자에게 보여 줄 패였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을 위해 그는 대만 무기 판매 서류에 서명을 미뤘습니다. 9월 24일이라는 날짜를 생중계로 꺼낸 순간, 그는 자신이 9월에 시진핑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패를 스스로 펼쳐 보였습니다. 협상에서 상대가 더 급하다는 것을 알면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주도권이 베이징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진핑의 시계는 10년짜리였습니다. 2027년 당대회와 다음 5개년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 지도자는 선거로 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6개월짜리 헤드라인을 샀고, 시진핑은 자립에 필요한 시간을 샀습니다.

이 1년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충돌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휴전은 조약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갈등의 뿌리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겨누는 인질을 잠시 맞바꾸고 총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내려놓은 총은 언제든 다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 1년을 자국의 무너진 광물 공급망을 다시 짜는 데 썼습니다. 국방부가 MP머티리얼즈의 주인이 되어 분리탑을 돌렸습니다. MP머티리얼즈는 미국 안에 하나 남은

희토류 통합 생산 기업입니다. 국방부가 직접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고, 중국이 가격을 후려쳐도 버틸 수 있도록 일정 가격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게 받쳐 주기로 했습니다. 광산에서 캔 광물을 자석까지 한 줄로 잇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산에서 자석까지 잇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땅속 조사부터 정제 설비를 세우는 일까지, 이 산업은 시간을 한참 먹습니다. 1년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중국은 그 1년을 공간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화웨이의 칩을 찍고, 메모리를 쟁이고, 규칙이 다시 잠기기 전에 살 수 있는 것을 샀습니다. 사재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칩 옆에 붙어 데이터를 빠르게 실어 나르는 메모리인데, 인공지능 연산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통제가 다시 잠기기 전, 살 수 있을 때 미리 쌓아 둔 것입니다. 두 거인이 각자의 발에서 방패를 버리는 동안, 그 1년의 휴전 지대 한복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회담 전날,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나란히 서울에 들렀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한 시간 간격으로 만나고,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실무 협상을 마쳤습니다. 부산에 이어 또 한 번, 한국이 미중이 만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무대를 빌려주는 것은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두 강대국이 한국 땅을 골라 마주 앉으니,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외교 분석은 그것을 부채라 불렀습니다. 두 강대국이 한국을 편리한 무대로 쓸 뿐, 각본의 권한은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받았지만 대사는 없었습니다.

그 1년 동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정제 시설을 세우고, 한미일 공동 비축망을 짜고, 수출의 길을 아세안과 소비재로 넓히고, 경제 부처를 넘어선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한국은 마그네슘의 99퍼센트, 산화텅스텐의 9할 넘는 양을 중국에 기댁니다. 마그네슘은 제조업의 소금이고, 산화텅스텐은 반도체 공정에 쓰입니다. 도장 하나에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국내에 광물을 쟁여 두는 것만으로는 그 위험을 풀 수 없습니다. 중국의 0.1퍼센트 룰은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길목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비축을 늘리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해도, 수출 길목에서 중국이 도장을 쥐고 있으면 공장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국내 비축을 넘어, 중국 바깥에 정제의 길을 따로 내고 동맹과 함께 비축망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톤으로 증명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광산 밖으로 꺼낸 광물의 톤수, 새로 깎 생산 라인의 숫자로 적어 내야 하는 성적표였습니다. 그 성적표는 아직 적히지 않았습니다. 모래시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장미 씨앗을 건넸습니다. 백악관 뜰에 심으라고 했습니다. 씨앗은 한 해를 묻혀 있다가 다음 봄에 꽃을 피웁니다. 그해 무엇을 심느냐가 그다음 봄을 정합니다. 두 거인은 각자의 밭에 방패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1년 동안, 무엇을 심었을까요.

11월 10일에 시계가 울릴 때, 한국은 두 고래 사이에서 등이 터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1년 동안 쌓은 실력으로 쥔 패를 펼쳐 보일까요. 그 답은, 이 책이 끝나는 지금도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는 사람은, 트럼프도 시진핑도 아닙니다.

에필로그 다시, 11월 10일, 그리고 9월 24일

유예된 1년의 휴전 시계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강대국의 충돌 한복판에 놓인 한국의 생존 전략은 부재합니다.

50%

미국의 위장 자회사 제재 룰

0.1%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그물망

99%

한국의 마그네슘 대중국 의존도

- 11월 10일, 미국의 촘촘한 제재망과 중국의 원자재 통제 그물이 동시에 펼쳐지며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할 예정입니다.
-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방패를 버리는 동안, 대체 비축망과 독자적 정제 시설을 확보해야 할 한국의 시간은 허비되었습니다.

Source: 붙여넣은 텍스트 - 에필로그

© NotebookLM

2026 미중 충돌의 지도

ISBN

저자 | 김경진

펴낸이 | 김경진

펴낸곳 | 김경진 변호사 출판사

출판사등록 | 2025. 3. 10. (제2025-000015호)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91, 백일빌딩 304호

전화 | 02-6338-1905

이메일 | kimkj008@gmail.com

가격 : 20,000원

© 김경진 2026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참고) 이 책 속의 사진 이미지 그래프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